



mécénat

기업과 예술의 만남, 메세나 | 2020 SUMMER & AUTUMN VOL. 111



SPECIAL ISSUE
내게 ON 예술

08



22



24



28



40



contents

2020 SUMMER & AUTUMN VOL. 111

08

SPECIAL ISSUE

테마 인트로

거리 두기, 마음 두기

메세나 통권 111호

발행일 2020년 9월 23일

발행인 김영호

발행처 한국메세나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7(여의도동 13-31)

기계산업진흥회 본관 6층

Tel. 02-761-3101~2

기획 한국메세나협회 경영기획팀

제작 디자인소호

가격 5,000원

홈페이지

www.mecenat.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ecenat.korea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oreamecenat/

10

테마칼럼①

팬데믹 시대 예술이 던지는 질문
*박신의(경희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교수)

14

테마칼럼②

'현실' 속 예술 '실현'
*김광집(서울예술대학교 영상학부 교수)

18

리포트

해외 예술 지원 현장 읽기
*박선민(예술경영 컨설턴트)

22

테마 스토리

화가 눈에 비친 역병의 공포
*전원경(문화콘텐츠학 박사)



메세나 포커스

24

예술인문

운명적 고통, 환희의 예술로
베토벤 탄생 250주년

28

인터뷰①

내게 ON 스타
피아니스트 임현정

32

아티스트

포디엄 위 거장
세기의 마에스트로

34

제도

'빛 좋은 개살구' 되지 않으려면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36

인터뷰②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이범현 회장

40

아트 포커스

이상할 것 없는 이상의 표현
리빙 뮤지엄의 세계

52

기업&예술파트너십

대원문화재단&평창대관련음악제
종근당홀딩스<제7회 종근당 예술지상 기획전> 개최
동아제약&문화예술봉사단메리
이스ப에스 주식회사&극단 더듬 '뮤지컬 <심우(犀牛)>'
화원사 뉴스

56

협회 소식 및 회원사 소개

대원문화재단&평창대관련음악제
종근당홀딩스<제7회 종근당 예술지상 기획전> 개최
동아제약&문화예술봉사단메리
이스파에스 주식회사&극단 더듬 '뮤지컬 <심우(犀牛)>'
화원사 뉴스

28

함께하는 메세나

메세나 캠페인

지속 가능한 추동력! 문화예술 지원
2019 기업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

메세나 가까이 보기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온라인 아티스트 멘토링'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두산아트센터 '두산아트스쿨 : 창작워크숍'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Gift콘'
GS칼텍스 '취준동고동락 4기 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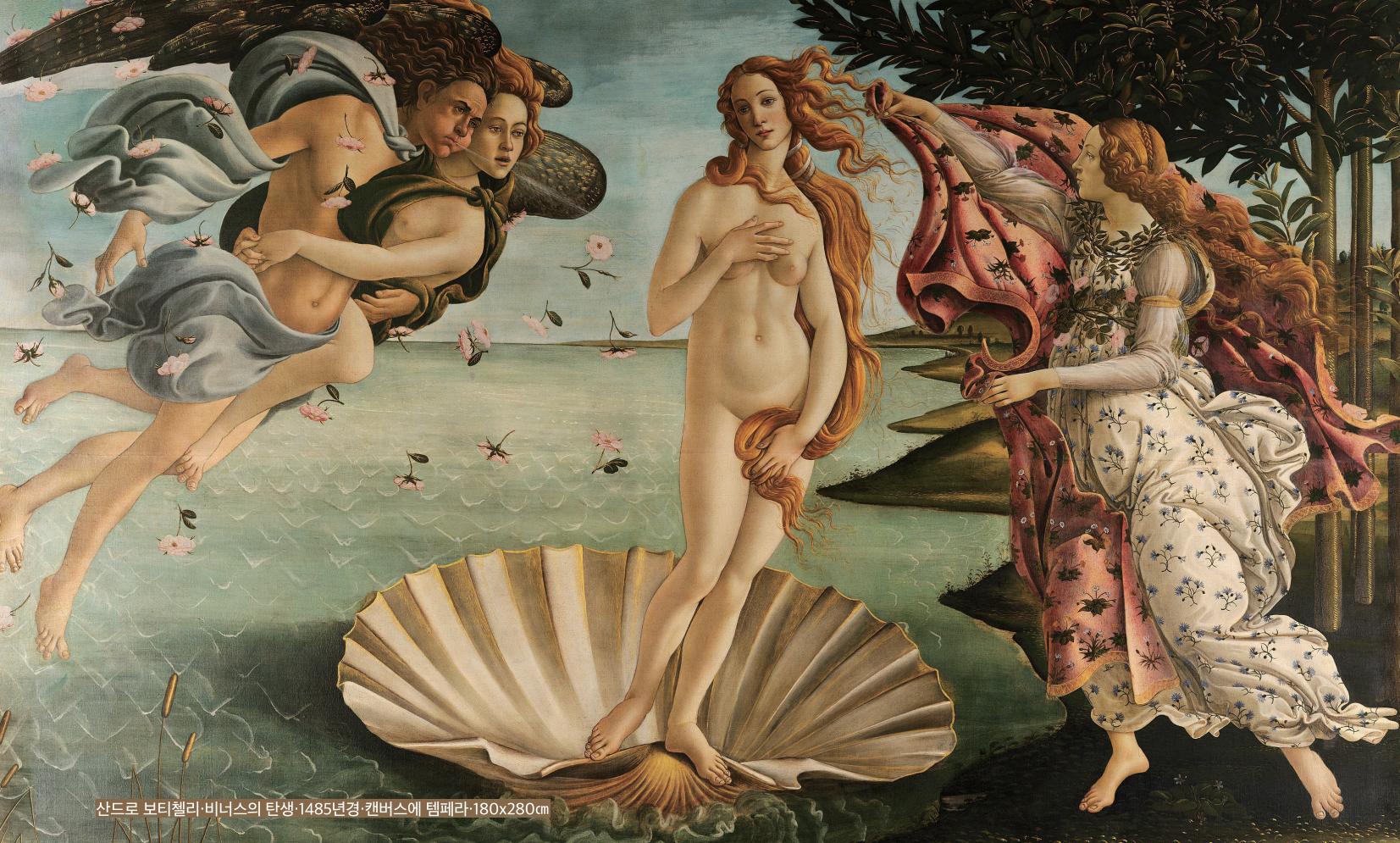
작품 <Melting Pot 10-33> 캔버스에 아크릴채색, 53x46cm (10호), 2016

'Melting Pot(멜팅 팟)'은 주로 뉴욕과 같이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여 있는 도시나 지역을 의미하는 말로 활용된다. 작가는 작품의 제목으로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작품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화면 안에는 제한적인 듯하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양한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에는 다양한 방향, 굵기, 무늬를 가진 선(線)이 여러 톤의 색감, 투명과 불투명, 부드러움과 거칠고 강렬한 질감과 규칙성을 느끼도록 유도한다.

작가_이대희

미국 School of Art Institute of Chicago 순수미술 학자, 서울대학교 서양화 석사 과정을 마친 작가는 활발한 작품 및 전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8 <계획된 즉흥의 조각 Piece of Planned Improvisations(노블레스 클랙션)>, 2017 <형형색색 Forms and Colors(캘리리 세인)>, 2015 <Melting Pot(캘리리 세인)>, <Melting Pot(문화공간 숨도, 서울)> 등 개인전을 통해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계간 <메세나>는 신진 예술가를 널리 알리고 현대미술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돋구자.
신진 미술 작가의 작품을 표지에 자속적으로 소개합니다.



산드로 보티첼리·비너스의 탄생·1485년경·캔버스에 템페라·180x280cm



호세 마누엘 발레스터 Lugar para un nacimiento 2012 Digital print on canvas 68.11x109.25inch. Jose Manuel Ballester

거리 두기, 마음 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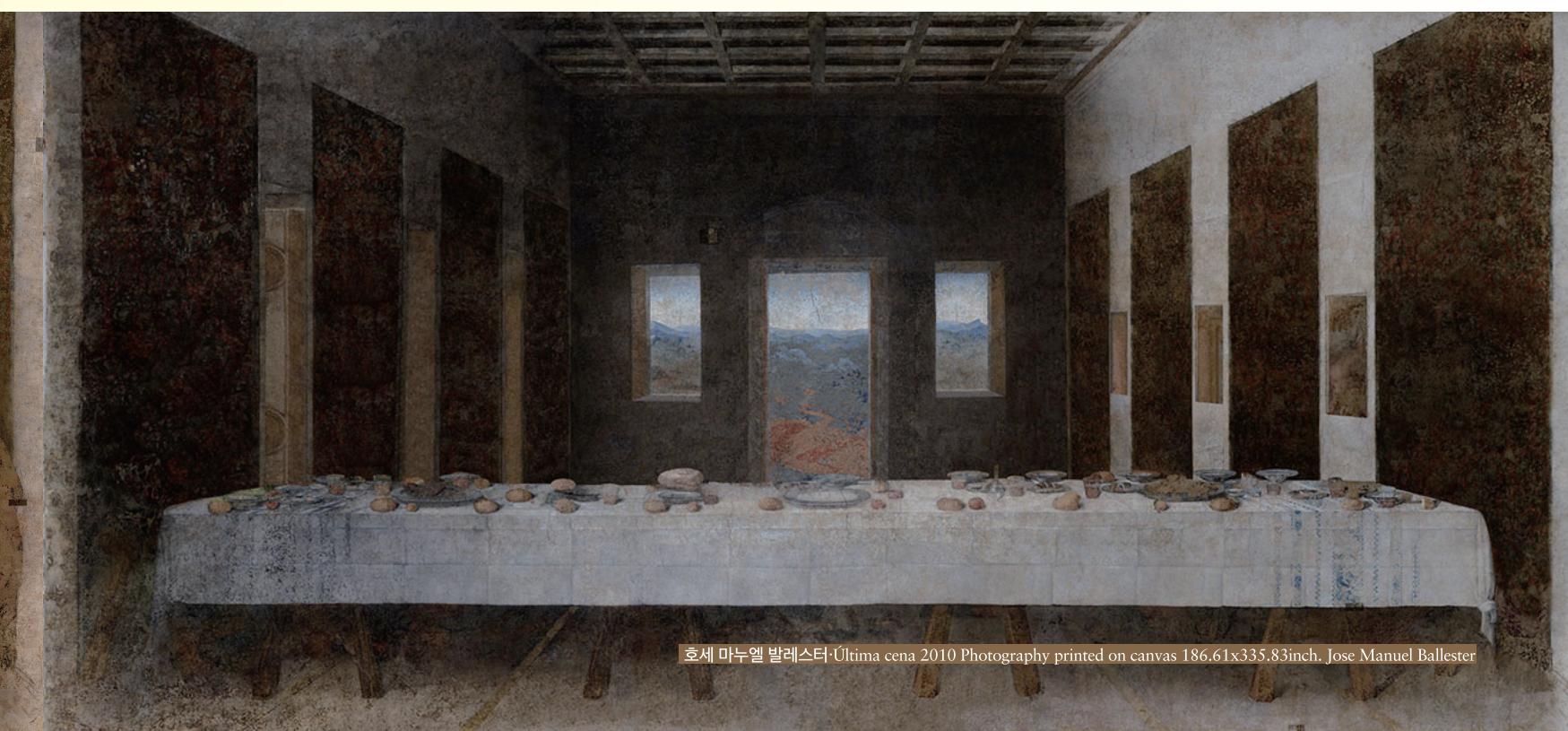
팬데믹 상황을 예견하듯 원화에서 인물이 사라진 모습을 표현한 스페인 화가 호세 마누엘 발레스터(jose manuel ballester)의 <숨겨진 공간(hidden spaces)> 시리즈는 오늘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떠올리게 해 묘한 여운을 남긴다.

국내 빅데이터 기업이 발표한 '바이러스 분석 트렌드'에 따르면 전 세계가 '비대면 연결 시대'로 접어들 것을 예상했다. 이른바, 언택트를 넘은 온(ON;연결)택트 시대다.

특히 문화예술 생태계 변화가 크다. 관객이 찾아가는 예술이 아닌, 관객에게 찾아온 예술로 접근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모빌리티, 온라인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영역에서 소통과 일상·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가운데 예술 생태계의 변화를 조명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예술 영역의 기능과 가치를 고찰해본다.



레오나르도 다 빈친·최후의 만찬·1495~1497년경 회벽에 유채와 템페라·460x880cm



호세 마누엘 발레스터·Última cena 2010 Photography printed on canvas 186.61x335.83inch. Jose Manuel Ballester

칼럼

팬데믹 시대 예술이 던지는 질문
글. 박신의(경희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교수)

'현실' 속 예술 '실현'
글. 김광집(서울예술대학 영상학부 교수)

리포트

해외 예술 지원 현장 읽기
글. 박선민(예술경영 컨설턴트)

갤러리

화가 눈에 비친 역병의 공포
글. 전원경(문화컨텐츠학 박사)

SPECIAL ISSUE

테마칼럼①

글·사진 박신의(경희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교수)

팬데믹 시대

예술이 던지는 질문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시련을 겪어내고 있다.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현실은 단순히 방역을 위한 대응만은 아닌 듯싶다. 오히려 그동안의 삶의 양식과 질서, 가치관을 버리거나 바꿔야 한다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언택트(Untact) 상황에 따른 뉴노멀(New normal)을 말하는 지금, 예술은 우리에게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위기를 살아온 예술, 삶을 질문하다

무수한 전쟁 속에서 예술은 인간의 탐욕과 침탈, 사악함과 잔인함, 절망과 비통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 역사적인 전염병 유행 속에서도 예술은 인간의 나약함과 비굴함, 저주와 공포, 신체의 추락, 영혼 파괴, 무력감과 종교적 원망을 낱낱이 기록해 왔다. 그러나 결코 위기를 단순 재현하는 데 그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예술적 성찰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인간에 대한 신뢰에 강한 의심을 두고, 그 무너진 신뢰의 탑 아래서 다시금 인간을 묻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크기, 삶의 크기, 깊이와 넓이를 재정립하고, 다시 삶과 만난다.

남자 소변기를 미술관에 옮겨 놓았던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은 예술의 개념적 성격, 즉 모든 편견과 제도적 틀에 대한 질문과 뒤틀림을 예술 행위로 간주했다. 머스 커닝엄(Merce Cunningham)은 동전 던지기 같은 일상의 ‘우연기법(chance technique)’을 무용 언어로 도입함으로써 제도적 틀과 통념을 깼다. 훈련받지 않은 누구라도 무용 수가 될 수 있으며, 어떤 장소에서도 무용을 할 수 있다 고 보아 극장을 일상 공간으로 끌어냈다. 존 케이지(John Cage)는 피아노 앞에서 <4분 33초>(1952) 동안 연주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가 퇴장하는데, 그 사이 청중들에게 들린 모든 소리가 음악이라고 했다.

요셉 보이스(Joseph Beuys)는 머리에 꿀과 금박을 뒤집어 쓴 채 자신이 안고 있던 죽은 토끼에게 미술관의 그림을 설명한 퍼포먼스(<죽은 토끼에게 어떻게 그림을 설명할 것인가 ; How to Explain Pictures to a Dead Hare>, 1965)를 했다. 그는 “모든 사람은 예술가다”라고 하면서 누구든 잠재적 창조자가 될 수 있으며, 모든 삶의 형태가 예술 작업의 원천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백남준은 이들을 불러 모아 인공위성으로 전 세계를 연결한 <굿모닝 미스터 오 웰>(1984)을 만들었다. 백남준은 원본이라는 작품 개념을 이미지로 돌리고, 미술관이나 공연장이 아닌 안방에서 TV를 통해 누구나 작품을 공유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바꿔버렸다.

예술의 사회적 영향과 효과

예술은 삶을 다르게 바라보게 함으로써 변화를 주도한다. 하지만 그 변화는 아주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에서 시작하는 법이다. 흔히 말하는 예술의 치유 효과라는 것도 자신의 존재의미를 성찰하는 것에서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일례로 노숙인에게 무용을 가르친다고 할 때 예술이 목표하는 바는 단순히 노숙인이 사회인으로 거듭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그가 자신의 몸을 자각하고, 몸의 언어를 의식하면서 자기

예술은 삶을 다르게 바라보게 함으로써 변화를 주도한다. 하지만 그 변화는 아주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에서 시작하는 법이다. 흔히 말하는 예술의 치유 효과라는 것도 자신의 존재의미를 성찰하는 것에서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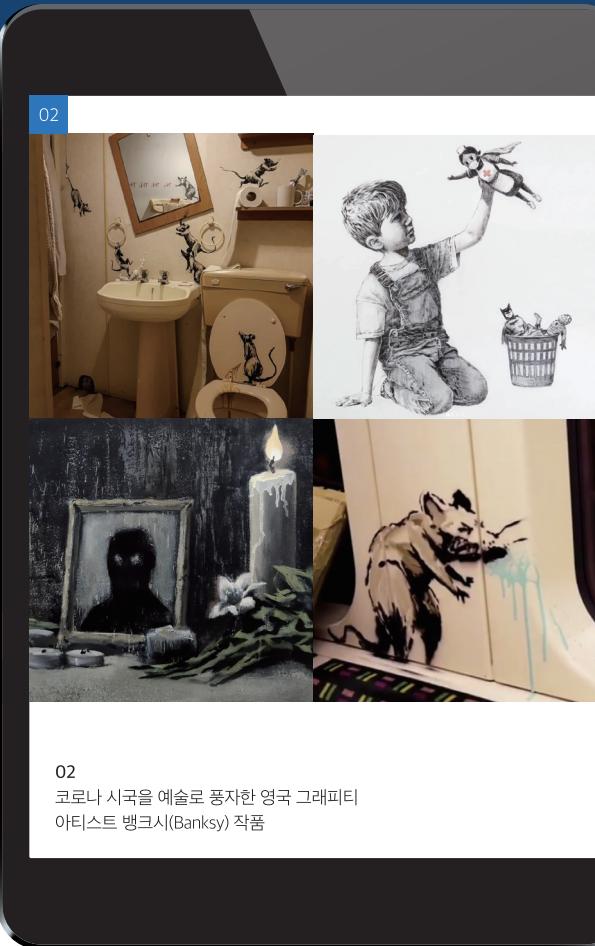
”

를 발견하는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래서 달라진 걸음길이에 의미를 둔다. 달라진 걸음길이로부터 자신의 삶을 혁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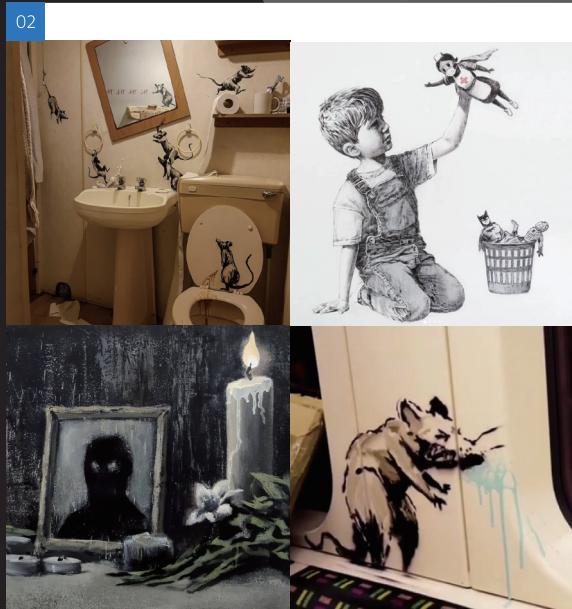
지금과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예술을 다시 찾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예술가의 존재가 더욱 중요하다”는 독일 메르켈 총리의 한 마디가 소중한 이유다. 돌아보면 영국도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 국가 재건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의료보험제도와 영국예술위원회 설립을 추진했다. 의료보험제도로 공공의료를 실천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정신건강을 위해 예술위원회를 설립한 정책적 선택이 여전히 놀랍다. 지금으로 치면 이는 곧 심리 방역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예술에 투자하는가? 예술의 가치를 다소 도식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본원적 혜택(Intrinsic benefits)과 도구적 혜택(Instrumental Benefits)으로 볼 수 있겠다. 본원적 혜택은 예술의 내적 효과, 즉 자아 성찰이나 본질적인 만족감 등을 말하며, 도구적 혜택은 본원적 혜





“
이제는 지역화, 분산화, 소그룹화,
개별화되는 상황에서 예술 향유
방식도 바뀌고 있다.
공연장과 미술관은 제한적으로
소규모의 관객을 맞이할 것이고,
온라인에서는 개별적이지만 엄청난
숫자의 이용자들이 작품을 감상하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



택으로 인한 스플로버(spillover) 효과와 같은 사회적 맥락의 혜택을 말한다. 이를테면 예술 체험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학교 폭력 문제가 해소됐다거나, 타인과의 소통 능력이 향상됐다거나, 지역공동체에 대한 결속감이 생겼다거나 하는 외적 혹은 사회적 영향 및 효과를 말한다. 예술을 통해 범죄율이 낮아지고, 공감능력을 확산하는 등의 사회적 효과는 어떠한 법과 제도의 강요된 틀보다 훨씬 인간적인 것이다.

예술 활동의 온·오프라인 병행

이처럼 예술의 가치와 영향력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지만 지금 예술생태계의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다. 모든 박물관과 미술관, 공연장이 문을 닫아버리거나 예약제로 제한된 관객만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은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다. 그 가운데 지난 6월 '태양의 서커스'가 파산보호신청을 했다는 기사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술은 현존과 대면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연장과

쇄하고 미술관 문을 닫고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를 최소하는 일은 치명적인 손실이자 일종의 존재론적 부정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예술 분야에서는 즉각적으로 준비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신속하게 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성진을 비롯한 유명 음악인들도 무료 라이브 연주를 하며 전 세계인들을 만났다. 그만큼 예술에 대한 노출 효과가 높아졌다라는 사실 또한 낯설지만 새로운 가능성으로 여겨진다. 또한 거리 상황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술 활동을 창의적으로 각자의 방식대로 실행하게 만들었다. 일반인들은 자신의 재치를 한껏 발휘하면서 명화를 패러디하거나 오페라 아리아를 부르거나, 집이라는 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SNS로 공유했는데, 이는 곧 예술을 자신의 일상에 접목한 결과라 하겠다. 결국 우리는 간신히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세계와 소통한 것이다.

그래서 머스 커닝엄이나 요셉 보이스가 말한 것처럼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모습도 확인하게 되는 것 같다. 일종의 엘리트 예술이 갖는 예술적 우월성과 달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기반으로 창작활동을 했으니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효과도 살아날 것이다. 또한 이제는 지역화, 분산화, 소그룹화, 개별화되는 상황에서 예술 향유 방식도 바뀌고 있다. 공연장과 미술관은 제한적으로 소규모의

03 유튜브를 통해 예술활동을 펼치는 일반인이 늘고 있다

04 에릭 휘태커는 2013년 73개국의 무대 위 실제 합창단과 가상공간 합창단 3,700명의 가상합창단(Virtual Choir)을 선보였다

05 디지털 콘서트를 진행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03 OUR FIRST VIDEO CORONA PARODY



Berliner Philharmoniker
DIGITAL CONCERT HALL IN YOUR HOME
Inspired by the Berliner Philharmoniker & Sony

Enjoy concerts by the Berliner Philharmoniker on your Sony device!
Get a free 30-Day ticket - exclusively for Sony customers.



하는 의료진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연대의식을 보여줬다. 그는 자신이 디자인한 꽃그림 포스터를 공유하고 이를 누구나 다운받아 각자 색칠한 그림을 다시 SNS에 올리게 했다. 거리의 예술가로 알려진 얼굴 없는 작가 뱅크시(Banksy) 역시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를 종합병원 응급실 근처에 설치했는데, 이 그림은 국립보건원의 기금 마련을 위한 경매에 붙여질 예정이다.

다른 한편 코로나 이전의 시기인 2011년부터 온라인을 이미 창작 방식으로 실행해 오던 에릭 휘태커(Eric Whitacre)의 가상합창단(Virtual Choir)도 주목할 일이다. 지금의 상황을 예전하듯 전 지구인이 인터넷으로 사공간을 뛰어넘어 참여해 2013년에는 무려 73개국의 무대 위 실제 합창단과 가상공간 합창단 3,700명이 함께 노래를 불렀다. 그 벽찬 연대감은 미래의 소통 방식을 미리 구상한 격이 됐다. 결국 백남준의 <굿모닝 미스터 오웰>로부터 시작한 연결의 의미가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역적이지만 전 지구적인 구도를 포괄하며, 지극히 개별화된 체험이지만 전 인류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효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감염병, 기후변화 등 인류 위기에 대한 성찰을 위해 예술은 기술의 연결 구조를 빌어 다시 질문을 던진다. ■

SPECIAL ISSUE

테마칼럼②

글·사진 김광집(서울예술대학교 영상학부 교수)

'현실' 속 예술

'실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여전한 가운데 현장감이 필요한 예술행사의 부족함을 보완해주는 기술이 전성기를 맞았다. 360도 전시공간, 콘서트 등 관람객들이 실감나게 예술 콘텐츠를 체험하도록 돋는 뉴 아트의 미래를 조망한다.

언택트가 쏘아 올린 뉴 아트 세계

우리는 지금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세상에서 살고 있다. 마스크는 일상생활 속에서 신체의 일부가 되었고, 해외나 사람이 많은 곳으로 여행을 간다는 건 두려운 일이 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생활이 되었고 일상 삶의 패턴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다. 대면이 필수였던 영화, 뮤지컬, 미술관, 박물관, 패션쇼, 콘서트 등의 문화생활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확장현실(XR), 인공지능(AI) 등의 첨단 기술을 통해 자신만의 공간에서 가능해지는 언택트(Untact, 비대면) 시대에 맞춰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고 주로 매트릭스 같은 SF 영화나 공상과학 소설에서 묘사되었던 것들이 점차 우리의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 기술과 따로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술과 융합한 예술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는 이제 예술과 기술의 융합으로 우리만의 세계적인 예술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거리 두기 속 예술 소통

코로나19 사태로 너무나 갑작스럽게 언택트 시대가 되자 대중이 참여하지 못해 어려워진 예술, 문화, 공연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대면 행사가 중지되면서, 언택트 시대에 맞춰 나만의 장소나 집안에서 쉽게 관람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콘텐츠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온라인의 한계라고만 생각했던 현장성의 결여는 오히려 현장의 제약에서 벗어난 새로운 경험의 장을 열어주고 있다.

대형 공연이 안방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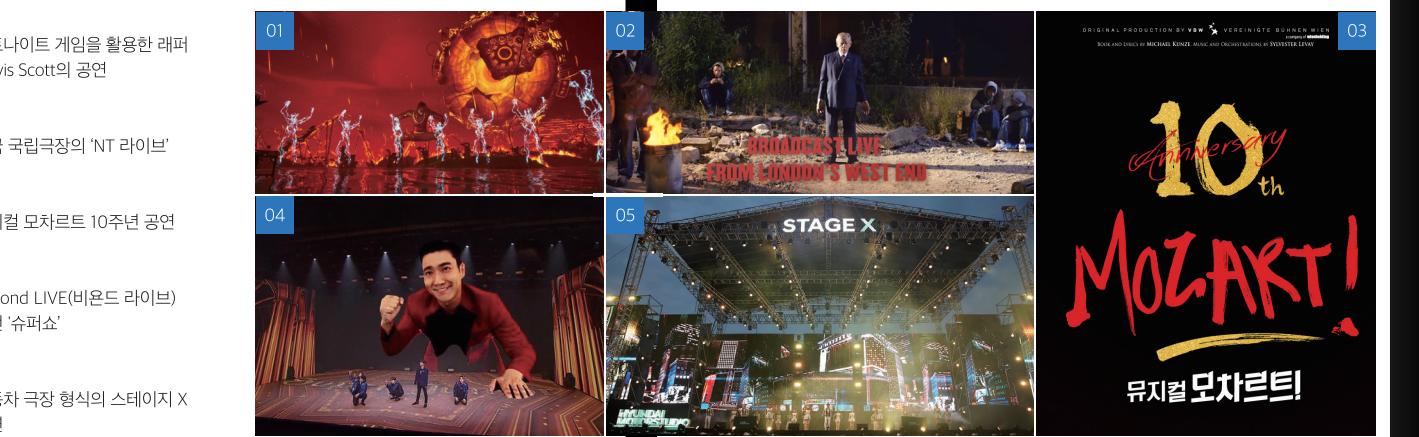
영국 국립극장은 우수 연극 공연 실황을 영상으로 제작한 'NT 라이브'를 유튜브 무료 콘텐츠로 선보인 바 있다. 집에서 해외 유명 공연을 무료로 좋은 공연을 감상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어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지침으로 조기 종연했던 뮤지컬 <모차르트>, <잃어버린 얼굴 1895>, <신과

함께_저승편> 등을 온라인 유료 공연으로 제공하려고 한다. 유료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온라인 공연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극장에서는 보여주지 못한 영상미와 무대효과 등 시너지가 필요할 것이다.

SM은 'Beyond LIVE(비욘드 라이브)'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온라인 유료 콘서트를 시도했다. 기존에도 실감콘 텐츠 기술을 활용해 코엑스 홀로그램 콘서트를 상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다. 'Beyond LIVE'는 세계 최초로 온라인 전용 콘서트를 유료화하여 전 세계 10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한 공연을 성공적으로 해내었다.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의 'Beyond LIVE' 버전 '슈퍼쇼'가 전 세계 12만 3000명의 팬들을 한자리에 모아 했고, 온라인 전용 공연의 이점을 살려 증강현실(AR) 기술과 그래픽 기술을 도입해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는 새로운 영상 콘텐츠 시장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방탄소년단 또한 '방방콘(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을 통해 전 세계 107개국에서 75만 명이 유료로 이 공연을 관람했다 100여분 동안 팬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무대들을 선보였다. 오프라인의 대형 콘서트장이 최대 5만 명 정도의 팬들이 참여 가능했다면, 이 공연은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초월한 수치다.

해외의 유명 아티스트들 역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언택트 시대에 팬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공연을 온라인으로 옮기며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래퍼 Travis Scott은 유명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에서 가상캐릭터를 활용해 콘서트를 열고 신곡을 공개했다. 게임사 측은 공연을 펼칠 때 1,230만 명의 동시접속자로 게임 역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게임과 유명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한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상의 공연 외에도 오프라인에서는 관객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자동차 안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드라이브 인 콘서트 또한 진행되었다. 현대차에서 주최한 '스테이지 X'는 주차장에 야외 특설 무대를 설치하고 차 안에서 즐기는 특별한 콘서트를 진행했다. 자동차 극장처럼 차량 안에서 무대를 보면서 소리는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 자동차의 오디오 시스템으로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스테이지 X는 다양한 문화 공연에 목마른 관람객들의 취향을 고려해 3일 동안 K-POP, 뮤지컬, 클래식 공연으로 일별 차량 300대씩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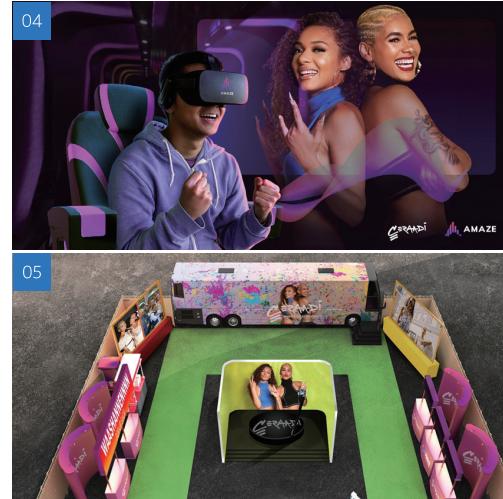
01
VR로 덕수궁 중화전 내부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

02
AR로 창덕궁에 구현된 전설 속 동물 해치

03
국립중앙박물관의 디지털 실감영상관 개관 포스터

04-05
AmazeVR의 가상현실을 이용한 공연플랫폼

06
AR기술을 활용한 뮤지컬 '킹키부츠'



VR로 즐기는 박물관 산책

이제는 문화재 관람도 언택트 시대에 새로운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유명 박물관들은 VR로 구현한 온라인 전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온라인 개관후 방문자가 1,500만 명을 넘어섰다. 국내에서도 SK텔레콤은 덕수궁에 VR 기술을 이용해 노약자나 현장 방문이 힘든 사람들도 이젠 집에서도 VR 영상을 통해 관계자의 해설을 들으며 덕수궁 석조전 내부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VR HMD를 쓰거나 스마트폰만으로도 360도 VR 영상으로 역사가 깃든 석조전, 중화전, 함녕전 내부를 감상할 수 있다.

창덕궁에는 AR을 활용해 우리나라 전설 속 동물 '해치'가 중강현실로 나타나 600년 전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국내 박물관들은 실감 콘텐츠라는 키워드로 변화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전시공간에 다양한 실감 콘텐츠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AR 기술을 통해 기존에 설명하기 어려웠던 내용을 관람객이 체험을 통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VR 기술을 통해 문화재를 360도 회전해보이며 실제 박물관에 간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방구석 1열 내 손안의 콘서트

LG유플러스는 뮤지컬 <모차르트>와 <킹키부츠>를 AR 콘텐츠로 제작해 서비스했다. 모차르트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시작되는 첫 공연과 동시에 U+AR 앱을 통해 공개 했다. AR을 통해 배우들의 주요 공연 곡들을 감상할 수 있고, 주연 배우들과 사진촬영을 할 수도 있다. 향후 많은 뮤지컬 작품들이 VR, AR, 홀로그램 등의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미국의 AmazeVR사는 수백 또는 수천 명의 관중을 밀폐된 공간이나 반 밀폐 된 공간으로 몰아넣는 대신, VR을 통해 개별적으로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그룹을 위한 대면 경험을 제공하려고 한다. R&B 힙합 듀오 Ceraadi를 시작으로 AmazeVR은 소규모 그룹의 사람들이 개인 보호 장비와 함께 모여 사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투어 버스 안에서 사전 녹음 된 공연을 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버스에서 관객들은 CG 가상공간에서 아티스트의 공연을 보는 동안 축감을 느낄 수 있는 무빙 시트에 앉아 VR 기기로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AmazeVR의 플랫폼은 주최자에게 사람들을 라이브 콘서트 경험과 유사한 것으로 부드럽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안전한 집에서 팬 전용 공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융합으로 여는 언택트 시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확장현실(XR), 인공지능(AI) 등의 첨단 기술은 국가 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기대를 모르고 있다. 언택트 시대에 이처럼, 문화적,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실감 콘텐츠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구현하거나 신기술을 융합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다양한 분야로 실감 콘텐츠의 영역을 넓혀나갈 것 필요가 있다. 단순히 하드웨어와 기술로 구성된 산업 생태계로 보이지만 예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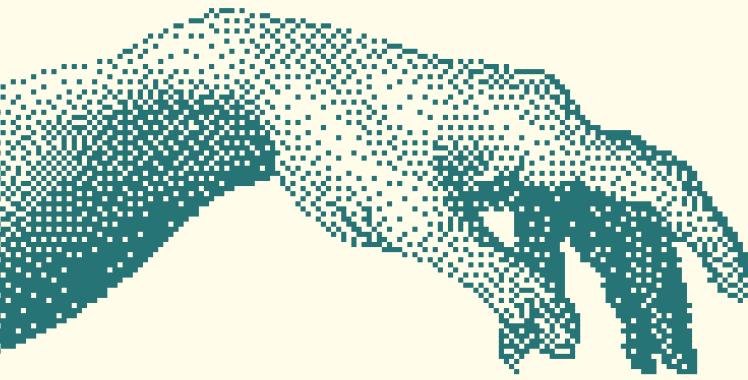
실제로 텔트 브러쉬라고 하는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활용해 현재 퍼포밍아트 예술가로 활발히 활동하는 예술가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효과에 대해 단기적으로 과대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SPECIAL ISSUE

리포트

글. 박선민(예술경영 컨설턴트)



해외 예술 지원 ————— 현장 읽기

코로나19 해외 문화예술계 지원 현황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예술계 역시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메리칸 포 더 아츠 등 해외사례를 통해 향후 국내 메세나 활성화에 필요한 요건을 되새겨본다.



**AMERICAN
EXPRESS**

mini interview _ American Express Foundation
대표 Timothy J. McClinton

“예술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

Q. AMEX가 예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유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통해 얻는 효과는?

A. 예술을 지원하는 이유는 첫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으로 차세대 리더 양성, 세계 문화유산 보존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들 수 있다. 두 번째, 마케팅 전략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세 번째, 예술 활동을 활용해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 기업은 CSR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직원, 지역사회에 배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기업이 CSR 활동을 하면서 얻는 효과는 우선 기업의 평판과 이미지 향상으로 인한 투자 유치 가능성 재고 및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즐거움),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기여가 있다. 또한 시장 우위를 선점해 고객들에게 주요 경기나 공연 선예매, 프리미엄 좌석 지정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 증가, 매출증대, 고객 유치, 차별적인 고객관계관리(CRM)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끝으로 임직원에게 박물관 및 예술단체의 무료 또는 할인된 티켓을 제공해 직원들의 사기와 만족도를 향상시켜 창의적인 능력 계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Q. 문화예술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언을 한다면.

A.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의 신념과 의지가 얼마나 큼’인느냐는 것이다. 만일 고객 유치와 유지를 위해 이미 예술지원을 진행 중이라면 재단에서 지원하는 행사가 고객의 관심 분야인지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의 사명과 평판에 긍정적으로 부합되는 지원 프로젝트나 단체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

Q.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문화예술 관계자 및 소비자에 전하는 말.

A. 유명한 안무가인 Mark Morris는 ‘예술은 사회를 활기차게

만드는 원동력이다’라고 말했다. 예술가들이 행하는 온라인 서비스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는 이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고 있다. 이런 시기 일수록 정부나 재단에서는 예술가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꾸준히 지원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

차세대 리더 양성, 문화유산 보존, 지역사회 봉사와 시민 참여 증진이 CSR의 핵심

”

#American Express Foundation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다

American Express(이하 AMEX)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궁극적으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올바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지속 가능한 개발과제 중 8개를 선택해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신진화가들이 참여하는 AMEX 기업 광고, Pharrell Williams와의 협업을 통한 ‘미술, 음악 교육 사업을 위한 재원 조성’ 등 작가들의 활동 범위를 확대시켜 대중에게 한 발 더 다가가게 하는 시도는 우리 기업과 예술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이 창의적으로 예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때 예술계는 탄탄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기업 역시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할 수 있다.



#GivingTuesdayNow | May 5, 2020

15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글로벌 기부 트렌드 ‘기빙 휴스데이 나우 (Giving Tuesday Now)’ 캠페인




mini interview _ American for the Arts
대표 Robert L. Lynch

“예술이 베풀어 준 것을 되돌려줘야 할 시점”

Q.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미국 기업들의 예술 지원 사례를 소개한다면.

A. 우선 기업과 재단, 비영리 단체들이 공공 및 지역 차원의 Relief Fund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가와 단체들을 지원한다. Artists Relief Fund는 공공 부분의 비영리 기관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있는 예술가들에게 최대 5,0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로 WESTAF CARES Relief 기금은 연방정부 기금과 협력해 WESTAF의 13개 주의 문화 예술 단체에 일반 운영비를 최고 20,000 달러 지원한다. 국가 예술 기관과 지역 예술 기관들 역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예술가, 창의 인력, 그리고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Q.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예술가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A. 예술은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과도 같다.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공동체의 결속력을 조성한다. 다시 말해 예술은 기업, 지역사회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이다. 예술계가 재정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위기 속에서도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대가 없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다. 그들이 재정적 위기에서 살아남도록 지지하고 응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Q. 특히, 이번 조사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예술계의 적극적인 설문 참여다. 어떻게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나.

A. 실제로 예술가와 단체들은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가 자신의 단체와 경력, 재정 상황에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매우 공유하고 싶어 했다. 상황 파악을 위해 여러 설문 조사를 개발하는 것이 필연적이었고, ON GOING 방식으로 설문이 진행되면서 연계 기관들과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설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덕분에

연방, 주, 지방 정부가 예술계 회복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다음 단계 키워드를 제시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Q. 한국 기업 및 예술계에 조언을 남긴다면.

A. 예술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사회를 화합하고 지역사회를 연결하며,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예술가와 창조적인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다. 한국 기업들이 서로 협력해 가장 효과적으로 예술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예술가의 니즈를 파악하고, 지원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의사결정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예술계를 도울 수 있는 최선책

”

#American For the Arts

코로나19 위기상황 속 예술계 지원 방안

American for the Arts(으하 AFTA)의 비전은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를 위해 ‘예술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받는 것이다. 예술이 삶의 부자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예술을 옹호하고 예술 지원을 목표로 한 조사·연구 사업, 예술계 네트워크 강화, 예술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AFTA는 ‘변화는 정보를 통해 이뤄진다’는 신념 하에 경제 개발, 일자리 창출, 교육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예술계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그밖에 예술의 사회적, 경제적, 내재적 가치를 내포한 전략적 메시지를 미국의 의사 결정권자, 인플루언서들과 나누어 그들이 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기회를 만든다. AFTA는 예술의 가치를 주요 의사 결정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더 많은 지원을 확보하고, 예술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혁신적인 전략 계획을 세워 미국 사회의 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AFTA의 부사장 Rany Cohen는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예술을 지원해야 하는 10가지 이유에 대해 ▲일자리 창출 ▲지역 소상공인들의 사업 활성화 ▲창조적인 경제 성장 ▲

관광 산업 증진 ▲지역사회 통합 ▲교육 파트너로서의 예술 ▲시민의 자긍심 고취 ▲군의 건강과 복지 지원 ▲건강한 공동체 조성 ▲사회적 유대감 향상을 꼽았다. 어떠한 상황이든 위기에 처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AFTA의 구체적인 설문조사는 예술계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도움이 필요한지 청사진을 제공해 주었다. AFTA의 설문조사를 통해 예술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었고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한국 역시 전략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해 예술가의 니즈를 파악하고, 지원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의사결정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예술계를 도울 수 있는 최선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문화예술 활성화 위한 기업의 과제

위 두 사례를 살펴보면 American Express Foundation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American For the Arts는 예술을 지원 할 수 있는 의사결정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었다. 이 기관들은 자신만의 포지셔닝을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예술계의 한 축을 형성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이 기관들은 그들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예술가들을 돋는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마케팅 전략으로 예술이 위기에서도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



WE'RE GATHERING DATA AND IMPACT STORIES.

COVID-19 IMPACT SURVEY

The survey will capture a broad spectrum of data and stories that will collect how the arts and culture workers triumphed and survived this crisis as well as the effect of the outbreak on operations through cancelled events, lost wages, and additional expenses.

→ Take the Impact Survey

AFTA가 진행한 ON GOING의 리서치 포스터

*한국메세나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문화예술계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글로벌 기업과 문화재단, 정부기관, 예술현장 등의 사례 조사와 담당자 인터뷰를 진행해 온라인 뉴스레터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원고는 뉴스레터의 원문을 요약하여 담았으며, QR코드를 통해 원문으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01

American Express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코로나19 위기 속 예술의 가치



02

American For The Arts의 코로나19 위기상황 속 예술계 지원 방안



03

코로나19 위기 속,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을 위한 싱가포르 정책



04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코로나19 대처방안

SPECIAL ISSUE

테마 스토리

글. 전원경(문화콘텐츠학 박사, 예술의전당 아카데미 강사)

화가 눈에 비친 역병의 공포

한 해의 절반 이상이 지나갔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세는 여전히 꺾일 줄을 모른다. 사실 전염병의 전 지구적 유행은 역사에서 그리 드문 일은 아니었다. 인류가 바이러스가 어디서 나타났고 왜 사라졌는지 치열하게 탐구하는 예술인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위기를 정면으로 관통했다.

인류 괴롭혀온 불청객

천연두, 콜레라, 황열병 등 치명적인 전염병들은 잊을 만하면 인류를 덮쳤다. 특히 1918년부터 1년 반 정도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은 적계는 1천만 명, 많게는 5천만 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그 가운데 환자의 몸이 검은 반점으로 뒤덮이며 죽음에 이른다 해서 '흑사병(Black Death)'이라 불렸던 폐스트는 가장 두려운 역병이었다. 1348년 흑사병 대유행으로 전 세계에서 7천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되어 몽골군의 침략과 함께 유럽 쪽으로 접근했고 제노바에 기항한 무역선을 통해 전 유럽으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 흑사병으로 인해 죽음의 공포를 느낀 사람들은 구원을 갈망하며 성당을 건설해 중세 후반기에는 하늘을 향해 높이 올라가는 고딕 양식의 성당들이 앞다퉈 생겨났다. 최초의 근대 소설로 불리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은 이 흑사병의 유행을 피해 교외의 별장으로 모여든 피렌체 남녀 열 명이 각자 열 개의 이야기를 번갈아 들려준다는 구성으로 만들어졌다. <데카메론>에는 1348년의 흑사병 대유행으로 피렌체 한 도시에서만 10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16세기 초반 독일 미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이젠하임 제단화>는 간접적으로나마 흑사병 유행의 공포를 그림으로 암시한 작품이다. 1512~1516년 사이에 독일 화가 마티아스 그뤼네발트가 그린 작품으로 열거나 닫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닫힌 상태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고통에 직면해 있는 예수의 모습이, 열린 상태에서는 수태고지와 예수의 탄생 그리고 예수 부활의 장면이 그려져 있다. 놀라운 부분은 죽어가는 예수의 몸에 생겨난 푸릇푸릇 한 반점이다. 흑사병 증상과도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 16세기 초반 흑사병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죽음의 형태였다. 그렇다 해도 예수가 흑사병과 엇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죽어간다는 설정은 자못 충격적이다.

두려움을 예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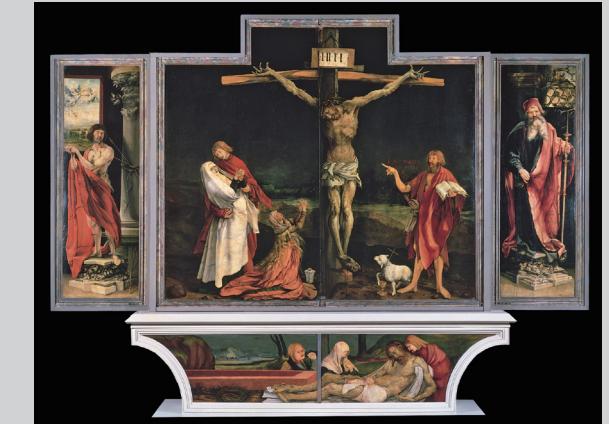
프랑스 화가 니콜라 푸생의 그림 <아슈도드에 번진 흑사병>은 전염병을 그림 주제로 삼은 드문 작품이다. '아슈도드'란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이교도의 도시다. 사무엘 상편 5장에는 이교도를 숭배하는 아슈도드 지역의 사람들이 하느님에게 징벌을 당한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푸생은 그 징벌을 흑사병으로 재해석했다.

인류의 역병에 대한 공포는 스페인 독감으로 절정에 달했다. 정체불명의 병에 쓸 수 있는 치료제는 없었고 전염된 환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다. 시인 아폴리네르, 화가 에곤 실레 등이 스페인 독감으

“

오늘날 현대미술의 패러디와 같은 풍자와 해학적인 모습과 다른 엄중하고 뼈아픈 시대가キャン버스에 그대로 담겼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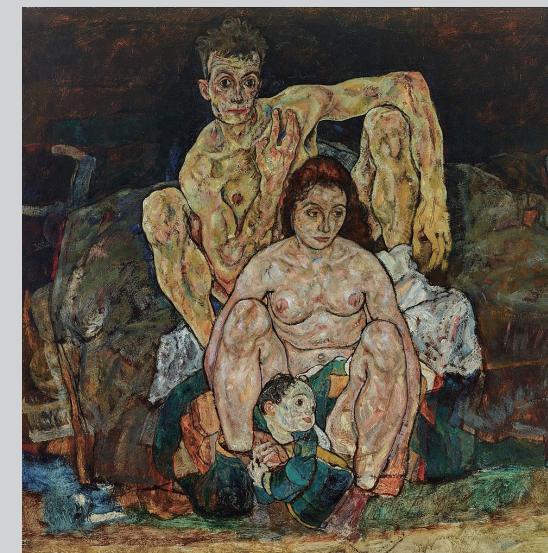


마티아스 그뤼네발트, 이젠하임 제단화, 1512-1515경

로 사망했다. 그중에서도 만 28세에 불과했던 에곤 실레의 죽음은 참으로 아까운 손실이었다. 오늘날 현대미술의 패러디와 같은 풍자와 해학적인 모습과 다른 엄중하고 뼈아픈 시대가 그의キャン버스에 그대로 담겼다.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가 '너무도 무서운 재능'이라고 불렀던 에곤 실레는 조숙한 천재였다. 그는 특이하게도 젊은 시절부터 죽음이란 주제에 기이할 정도로 집착했다. <죽은 어머니>란 그림에서 화가는 이를 임신한 채 죽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충격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실레에게 성(性)은 새 생명 탄생으로 이어지는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통로로 여겨졌다.

병적으로 예민했던 실레의 감성은 이상적인 연인 에디트를 만나며 한결 누그러졌다. 하지만 끈질긴 죽음의 그림자는 불현듯 그의 가족을 덮쳤다. 1918년 가을, 에디트가 임신한 상태로 스페인 독감에 감염되었다. 실레는 어머니에게 '에디트가 스페인 독감에 걸렸고 치명적인 상황이다'라고 담담하게 쓴 편지를 보냈다. 당시 실레도 이미 감염된 상태였다. 에디트는 실레가 편지를 쓴 다음 날 사망하고 그로부터 사흘 뒤 실레도 스물여덟의 나이로 에디트를 따라간다. ■■■

에곤실레, 가족, 1918



에곤 실레, 죽은 엄마, 1910



에곤 실레, 늦가을의 작은 나무, 1911



글. 최은규(KBS 'FM실황음악' 진행, <베토벤: 절망의 심연에서 불러내 환희의 선율> 저자)

올 한 해는 전 세계적으로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리는 국내 음악 축제들이 줄줄이 예정됐다. 하지만 세계 각지의 크고 작은 연주회장에서 기획된 공연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연기되는 등 문화예술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에 놓였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시국에 온갖 역경을 이기며 작품을 완성했던 베토벤의 삶이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재 상황에 주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봄직하다.

운명적 고통 환희의 예술로

베토벤 탄생 250주년

Ludwig

van

Beethoven



베토벤의 수식어

음악의 혁명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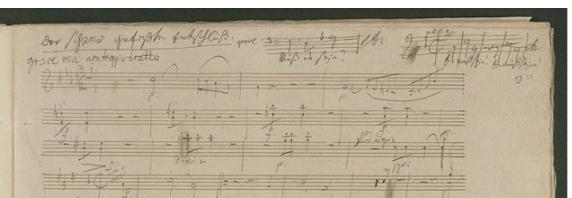
베토벤은 서양 고전음악 역사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악가다. 그는 고전주의 음악과 낭만주의 음악의 경계에 선 음악가로서 고전주의 음악의 순수한 음악형식을 넘어 주관적인 감정을 작품 속에 담아내며 낭만주의 음악의 출발을 알렸다. 결코 선배 작곡가 하이든과 모차르트가 정립해놓은 고전주의의 틀에 머무르지 않고 그 틀을 과감히 깨고 음악의 혁명을 일으켰다.

불굴의 음악가

한 자연인으로서의 그의 삶은 고난과 불행의 연속이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학대 속에서 어렵게 음악 공부를 해야 했으며, 항상 병고와 생활고 속을 헤쳐 나가야 했고, 태협을 모르는 고집스러운 성격과 거만함으로 인간관계도 원만치 않았다. 또한 자신은 평민 출신이면서도 귀족 가문의 여인들과 사랑에 빠져 결과적으로 번번이 실패만 했다. 무엇보다 음악가로서는 치명적인 귓병을 앓아 말년에는 완전한 침묵 속에 살아야 했던 그는 한때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지만, 그런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파격적인 음악작품을 통해 그 자신의 고통을 위대한 예술로 승화시켰다.

성공한 프리랜서

베토벤은 자유음악가로서 성공한 인물이다. 즉 프리랜서로서 음악회 개최와 악보 출판, 음악 교습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작곡가다. 이는 그가 살았던 시대를 생



베토벤의 협약4중주 16번 F장조 악보에는 베토벤이 적은 '그래야만 한다(Es muss sein)' 문구가 적혀 있다

각해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베토벤의 선배이자 스승인 하이든만 해도 하인과 비슷한 신분으로 궁정음악가의 제약된 삶을 살아야 했지만, 베토벤의 시대엔 자유음악가로서의 삶이 가능했다. 베토벤이 살았던 18세기 후반 기부터 19세기 전반기는 귀족이 몰락하고 상공업으로 성공한 자본가들이 새로운 '음악 소비자'로 떠오르면서 대중을 위한 음악회 무대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자본가들은 귀족 못지않은 교양을 쌓기 위해 집안에 피아노를 들여놓고 집에서 피아노곡과 실내악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자연스레 집에서나 음악회에서 음악을 즐기는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니, 작곡가들도 연주회 무대와 악보 출판을 통해 수입을 얻었고 경제력의 성취를 통해 작곡가 개인의 목소리를 좀 더 강하게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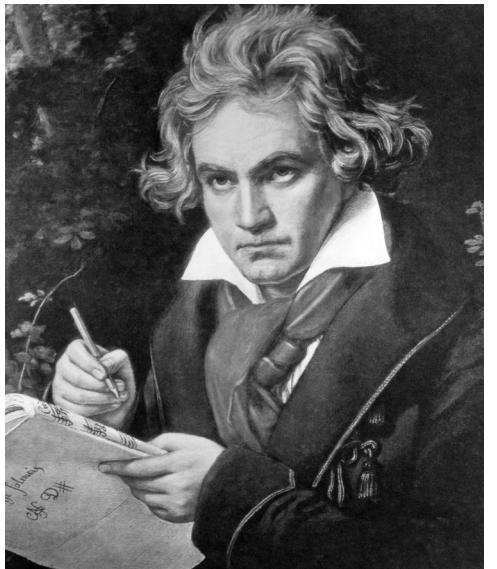
노력하는 천재

베토벤은 매우 뛰어난 재능이 있었으면서도 작품을 완벽하게 다듬어내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작품을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하고, 한 곡 한 곡 심혈을 기울여 썼으며 단 몇 소절 짜리 동기를 작곡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수정을 거듭했다. 그 결과 베토벤의 작품은 각기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그 작품이 역사 속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밝혀준다. 베토벤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는 교향곡 제5번을 작곡하기까지 얼마나 여러 차례 작품 수정을 거듭했는지 베토벤의 스케치북은 말해준다. ■

독일 본 시의 베토벤 생가 명판



베토벤의 초상화



1775 아버지로부터 첫 음악수업 받음

1782 베토벤의 재능을 한 눈에 알아본 스승 네페의 추천으로 오스트리아 본 궁정 오르가니스트의 무급 조수로서 궁정음악가의 생활 시작

1784 만 13세에 본 궁정 제2 오르간 연주자로 승진 새벽 미사의 오르간 반주를 시작으로 저녁 음악회에서 첼발로 연주

1787 거장 모차르트를 만나 인정받지만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에 그에게 배울 기회를 뒤로하고 고향 본으로 돌아옴

1790 본의 독서회의 의뢰를 받아 첫 번째 주요 작품인 <요제프 2세 장송칸타타>와 <레오폴트 2세 대관식 칸타타> 작곡

1793 하이든으로부터 작곡 레슨을 받고 당대 유명 음악가인 겔리네크와 피아노 즉흥연주 시합을 통해 탁월한 피아니스트로서 이름을 알림

1795 베토벤의 첫 출판 작품인 피아노 3중주 op.1의 세 곡 출판

1796 프라하, 드레스덴, 라이프치히, 베를린으로 연주여행

1800 빈의 부르크 극장에서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작품과 함께 자신이 작곡한 7중주와 교향곡 1번을 나란히 무대에 올림

1802 악화되는 귓병을 비관하며 동생들에게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라 불리는 편지 발송 편지를 쓰는 동안 음악가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이후 영웅적인 양식의 걸작들 발표

1804 교향곡 3번 <영웅>, 피아노 소나타 <빌트슈타인> 등 영웅적인 양식의 주요 작품들 완성

1808 안 데어 빈 극장에서 장장 4시간 동안 계속된 음악회에서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과 6번 <전원>, <합창 환상곡> 등을 선임

1809 베토베이 계속 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간 4000 플로린의 연금을 평생 지급한다는 약정서 작성

1812 '불멸의 연인' 부치지 않는 편지 작성

1813 빈 대학 강당에서 베토벤 교향곡 7번 초연 '웰링턴의 승리'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작곡가로서 명성을 드높임

1814 베토벤, 바이올리니스트 이그나초 슈판치히, 첼리스트 요제프 링케가 함께 한 무대에 올라 베토벤의 피아노 3중주 <대공> 연주

1824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베토벤의 <장엄미사> 초연 빈의 케른트너토어 극장에서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 초연

최은규 음악칼럼니스트 추천 베토벤 명반 TOP 3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9번 A장조 op.47 '크로이처'

(바이올린_오귀스탱 뒤메이, 피아노_마리아 주앙 피레스. 도이치 그라모폰)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대직하며 심음을 벌이듯 연주하는 크로이처 소나타는 2중주 소나타의 모범이다. 뒤메이의 바이올린은 날카롭고 힘찬 반면, 피레스의 피아노는 부드럽게 흐르듯 달콤해 성격 다른 남녀가 조화를 이루는 듯하다.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op.61

(바이올린_레오나디스 카바코스 /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소니)

바이올리니스트 사이에서 모든 바이올린 협주곡을 다 연주한 뒤 가장 마지막에 연주하는, 어려운 곡으로 꼽힌다. 그리스 바이올리니스트 카바코스는 군더더기 없는 바이올린 음의 정수를 선보인다. 그의 독특한 카덴차(기교적이고 화려한 무반주 부분)는 감흥을 배가시킨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 C단조 op.37

(피아노_루돌프 부흐빈더 / 빈필하모니 관현악단. 소니)

간결한 주제와 철저한 주제 전개 방식이 돋보이는 피아노 협주곡으로 베토벤의 개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작품이다. 둔도 형식의 3악장 중간에 푸가가 들어가는 형식은 후에 브람스가 모방할 정도로 빈틈없는 구성을 보여준다. 부흐빈더는 묵직하고 꽉 찬 음색으로 베토벤이 환생한 듯한 연주를 선보인다.

"우리의 기억, 남아있는 잔상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소리의 잔향이 없다면 모든 것은 무의미"

로버트 헨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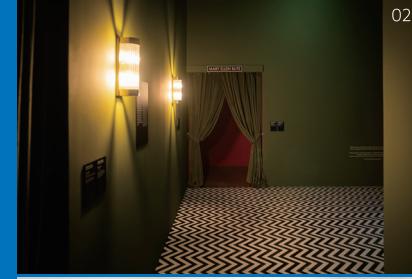
일시 2020. 5. 19 ~ 12. 27

장소 디뮤지엄

관람료 1만 5천 원(성인)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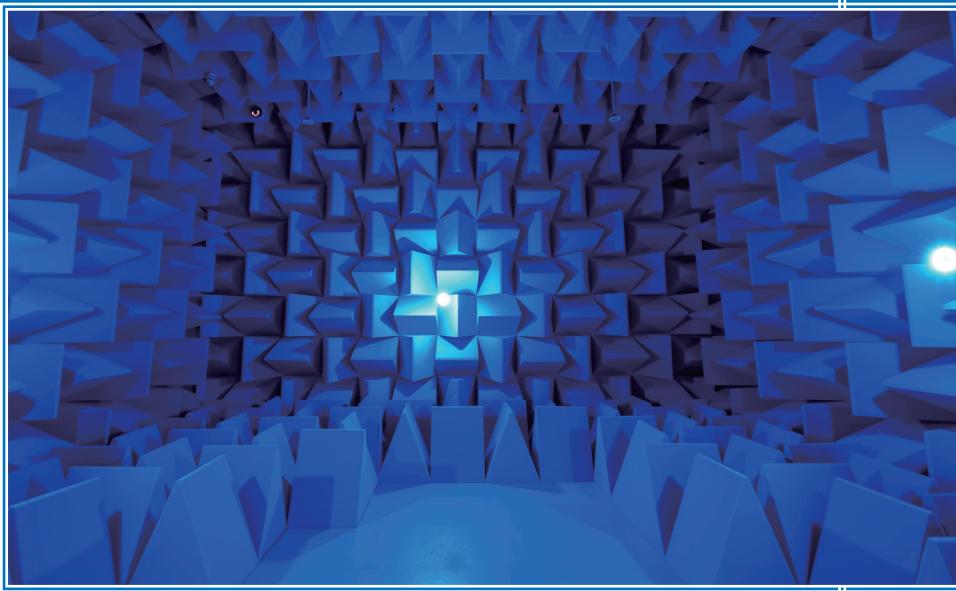
02



03

빛이 울리는 13개 사운드 큐브

<SOUNDMUSEUM : 너의 감정과 기억> 展



디뮤지엄의 기획 전시 <SOUNDMUSEUM: 너의 감정과 기억>이 올해 사계절을 관통해 관람객과 만난다. 세계적인 작가 13팀의 사운드 인스톨레이션, 관객주도형 퍼포먼스, 인터랙티브 라이트 아트, 비주얼 뮤직 등의 사운드&비주얼 아트 작품 22점이 다양한 범주로 소개된다. 디뮤지엄 개관 아래 최대 규모다.

총 3개 층에 걸친 13개의 독립된 공간에서 11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듣고 보는 경험을 소리, 빛, 공간 등 다양한 감각이 결합된 작품으로 선보인다.

차분한 빛으로 채워진 M1 전시장은 수백 개의 작은 스피커들을 통해 송출되는 세밀하고 맑은 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게 한다. 인터랙티브 사운드 아트를 통해 아름다운 빛과 화음의 세계를 펼쳐낸다. 계단으로 이어지는 M2 전시장에서는 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작품들을 만나며 소리가 전달하는 새로운 방식의 스토리텔링을 선보인다. 소리, 빛, 신체와 그림자의 상호작용을 느끼게 해주는 키네틱 사운드 인스톨레이션과 소리가 들리지 않는 침묵의 공간이 미지의 세계로 이끈 데 이어, 섬광처럼 빛나는 레이저의 움직임과 사운드가 생성하는 무한한 공간이 펼쳐진다. 관객은 다른 차원의 시공간을 거닐 수 있는 몰입형 4D 사운드 설치 공간까지 다다르는 동안 온몸으로 소리에 입체적으로 몰입해보는 강렬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번 전시는 관객 간 거리 2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간당 입장 인원수를 제한하는 '거리 두기 관람'으로 운영됩니다. 전시는 온라인 사전 시간 예약(네이버, 디뮤지엄 홈페이지)을 통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스물다섯 나이에 전통의 클래식 명가 EMI 클래식스에서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녹음한 피아니스트. 권위 있는 콩쿠르를 통해 배출됐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틀렸다. 피아니스트 임현정은 클래식계 원조 '유튜브 스타'다.

내게 ON

스타

피아니스트 임현정

소통하는 아티스트

열두 살에 혈혈단신 프랑스로 피아노 유학을 떠났던 용감한 소녀는 데뷔 과정도 파격적이었다. 2009년 벨기에 바젤에서 열린 쇼팽과 라흐마니노프 연습곡 전곡 연주회에서 앙코르곡으로 연주한 린스키 코르사코프의 '왕별의 비행' 덕에 굳이 콩쿠르에서 입상할 필요가 없었다. 연주회 영상을 한국에 계신 엄마에게 보여주려고 유튜브에 올렸을 뿐인데, '세상에서 가장 빠른 왕별'로 불리며 단숨에 뜬 것이다.

2010년 프랑스 파리에서 8일 연속으로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연주한 후에는 EMI 클래식스의 러브콜을 받았다. 2012년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집을 녹음했고, 한국인 연주자 최초로 빌보드·아이튠스 클래식 차트 1위에 오른 것도 그다. 피아노로만 말하는 아티스트도 아니다. 2016년에는 프랑스 유명 출판사 알방 미셸에서 에세이집 <침묵의 소리>를 펴냈고, 올해 초에는 베토벤의 삶과 음악에 관한 책 <당신에게 베토벤을 선물합니다>를 내기도 했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이자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연주한지 꼭 10년이 되는 올해는 자칭 '베토벤 스토키'인 임현정에게도 특별한 해일 터.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베토벤 소나타로 꾸미려던 '클래식 레볼루션' 등 많은 공연을 부득불 취소해야 했다.

"지난 2월 4일 스위스 로잔느에서 리사이틀을 마치고 이를 뒤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코로나 사태가

터지더군요. 불행 중 다행으로 그나마 고국으로 왔을 때 라 큰 혼란은 없었어요. 그 뒤로 쭉 한국에서 지내며 가족과 못다 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누고 나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 공연들이 많이 취소가 되어 안타깝지만 사실 더더욱 슬퍼하고 있을 분은 베토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를 1년 동안 기념하며 그분의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 철학과 생각을 더욱더 넓게 나눌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너무 안타깝죠."

'가장 빠른 왕별'은 다시 유튜브로 돌아갔다. 공연을 못하는 대신 유튜브를 통해 연주도 들려주고, 베토벤에 관한 신간을 낭독하며 팬들과 소통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유튜브 생방송으로 저의 음악을 사랑해 주시는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훙 지나가죠. 그동안 공연 후 싸인회에서 팬들과 따듯한 눈빛을 나누었다면, 유튜브 생방송으로는 그분들의 귀한 생각도 읽을 수 있고, 같이 토론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인간다움과

마주하다

하반기에는 고양문화재단의 언택트 프로젝트 '데일리 씨 어터'의 매니저로 활동을 시작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변화된 환경에서 누구나 일상생활 가운데 문화·예술에 접근할



스타가 아닌 좀 더 인간적이고 청중에게 가깝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더욱 승화되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예술인이 될 수 있겠죠.

“

”

피아니스트 임현정 ©PiljooHwang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로, 참가자들은 9월부터 12월까지 100일 동안 온라인 플랫폼 '카카오프로젝트100'를 통해 매니저(아티스트)와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임현정이 지정한 미션은 '매일 베토벤 음악에 access하기'다.

"베토벤 관련 공연이 대거 취소된 만큼, 이 '베토벤 100일 프로젝트'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와요. 거의 마늘과 쑥만 먹으면서 100일 동안 베토벤에 대한 100일 기도, 정진, 수행이라고 할까요? 농담이고요, 매일매일 베토벤과 함께 지내면서 삶 그 자체가 예술이 되길 바라는 프로젝트예요. 많은 분들과 함께 해서 더더욱 시너지가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죠."

자칭 '베토벤 스토퍼'인데, 어쩌다 그렇게 된 건가요.

"처음 베토벤 초상화를 보고 엄하고 부리부리한 눈빛이 꼭 강철 같고 무섭기만 했던 저의 아버지가 떠올랐거든요. 10대 시절 개인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큰 심장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굉장히 강한 존재였고,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굉장히 단단한 불멸의 무적이었는데, 그런 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 가신 거죠. 갑자기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아버지 역시 한 인간이구나. 연약하고 가냘픔이 있는 한 인간이로구나! 밀리서 두려움으로 바라보았던 아버지도 역시 아픔과 상처가 있고 그것들을 지금의 현재와 화해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저 평범한 인간이었구나! 정말

“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싶고, 그의 의도와 하나가 되고, 작곡할 때 파동치던 그의 심장과 하나가 되고 싶었어요.

”

충격적이었어요.”

'내 아버지도 인간이었다'는 평범한 각성이었지만, 이 깨달음은 아버지와 베토벤을 동일시한 임현정의 예술과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 후로 제가 작곡가들과 음악을 대하는 자세에 혁명과 같은 변화가 생겼어요. 특히 베토벤이 그저 성스럽기만 한 박물관 작품으로 다가오지 않게 됐죠. 멀리서만 숭배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몸과 영혼을 다 바쳐 하나가 되어 연주하리라. 용기를 갖게 됐어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싶고, 그의 의도와 하나가 되고, 작곡할 때 파동치던 그의 심장과 하나가 되고 싶었죠. 그렇게 베토벤의 세계에 스토퍼처럼 빠져 들어갔고, 그의 음악 세계를 탐구하는 여정은 사실 지금도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어요."

베토벤은 극복과 승리의 대명사로 통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베토벤의 이상처럼 음악이 절망적인 세상을 구



할 수 있을까요.

"베토벤은 자기 자신을 이긴 인간으로서 승리의 대명사로 통하잖아요. 사실 남을 이기는 것보다 스스로를 이기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하죠. 베토벤은 자기 음악이 인간들로부터 지극히 유품적이고 속물적인 관심사에서 벗어나 영적 승리를 도와주는 도구라고 했는데, 음악이 혼자서 세상을 구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음악이 큰 역할을 하고 많은 위안을 주며 고달픔을 덜어줄 거라 생각되네요."

코로나 이후 클래식 공연 형태도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 연주자들은 어떻게 진화를 모색하고 있나요.

"무대 위에서 독보적으로, 때로는 약간 신격화가 되어 멀리 있는 것만 같은 '스타'에서 조금 더 인간적이고 청중에게 가깝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노력이 더욱 승화되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예술인들이 될 수 있겠죠."

음악의 힘

연주자의 숙명

세 살에 피아노를 처음 만난 임현정은 열두 살에 훌륭한 유학을 떠났다. 한국 음악가들이 흔히 가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도 아닌 프랑스에서 콤플엔느 콘서바토리와 루앙 콘서바토리를 거쳐 열여섯 나이에 파리 최고 국립음악원에 최연소로 입학했다. 라벨, 드뷔시, 생상스 등 전설적

인 작곡가들이 다녔던 유서 깊은 학교다. 어려서부터 유학 생활이 경제적으로 힘들진 않았을까.

"제가 공부한 모든 음악원은 국립이었어요. 콤플엔느 콘서바토리와 루앙 콘서바토리는 일 년에 등록금이 대략 30만 원 정도였죠. 파리 최고 국립음악원에 입학하니 연 60만 원 정도가 들더군요. 워낙 소수만 뽑는 만큼 그 정도만 지불하고 전액 장학금을 받는 셈이죠. 프랑스 교육시스템에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물가가 비싸서 파리 외곽의 원래 주차장이었던 집에서 시의 방역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 했죠. 파리 유학에 대한 로망이 깨졌다면 죄송하네요.(웃음)"

애초부터 콩쿠르를 외면한 건 아니었다. 열다섯에 참가했던 콩쿠르에서 약보를 채 외우지도 못한 참가자가 1위를 차지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 잠시 좌절도 했지만, 이듬해 파리 최고 국립음악원에 최연소로 합격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다.

"그때 정의롭지 않음을 목격하게 됐지만, 정의의 여신이 결국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었으니까요. 누군가의 불행이 없이는 승자가 나올 수 없는 그런 경쟁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나 자신을 우주에게 한번 맡기고 믿어 보자는 각오를 스무 살 경에 하게 됐어요. 사실 굉장히 어렵고 극단적인 각오였죠."

자기 자신을 '존재 그 자체로 숭고한 피아니스트'라고 거칠 없이 말하는 그는 통상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피아니스트들과 달리 굉장히 쾌활하고 털털한 모습을 보인다. "혼자서 침묵하고 사색하는 시간이 많아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즐겁고 쾌활해진다"는 것이 이유다. 특유의 넘치는 자신감도 시그니처인데,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본인의 연주를 '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도 모자라다'고 했었다. 무슨 뜻일까. "연주에서 아름다움과 의로움을 추구했다면 전 지구인 및 모든 생명들에게 그것이 전달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전달할 의도가 없더라도 나비효과로 내 마음과 생각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 연주라는 것에 어마어마한 책임감이 따르면서도 한편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저에게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포디엄 위 거장

세기의 마이스트로

지휘자가 없는 무대를 상상할 수 있는가? 클래식 음악이 지금 까지 존재하는 까닭은 쉴 새 없이 포디엄(podium)에 오른 지휘자 덕분이다. 한 세기를 뜨겁게 달군 지휘의 거장 카라얀, 번스 터인, 마젤, 얀손스를 소개한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레너드 번스타인

로린 마젤

마리스 얀손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거목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Herbert von Karajan**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지휘자로 불리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1908~1989)은 클래식 음악을 이끌어 온 수장 중 한 명이다.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재능을 키워가던 중 모차르테움(1842년 모차르트를 기념하기 위해 설립한 모차르트 연구기관)에서 열정을 쏟았다. 그의 지휘 스타일은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하다. 또 악보를 보지 않고 지휘하는 점도 특징 중 하나다. 눈을 감은 지휘자의 손짓과 몸짓은 청중을 음악에 더 집중하게 만든다. 1929년 독일의 울름 극장 지휘자를 시작으로, 유럽 곳곳의 포디엄에 오르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2차 대전 종전 후인 1955년부터 무려 35년 동안 그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로 활동했다. 동시에 많은 음반 작업도 진행했다. 그의 생전에 클래식 지휘자 중 가장 많은 음반 판매량인 약 1억 1,150만 장 정도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현재까지도 판매되고 있으니 전·현직 지휘자 중 최다 음반 판매 보유자로 남은 셈이다.

최초의 미국식 지휘 전설 레너드 번스타인

Leonard Bernstein

레너드 번스타인(1918~1990)은 클래식 음악을 대중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미국 지휘자다. 유년시절 음악에 대한 호기심을 보였으나 부모의 반대로 음악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풀어내듯 1954년부터 1989년까지 TV를 통해 청소년을 위한 콘서트 시리즈를 진행하며 미국 전역에 클래식 음악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데 기여했다.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영민한 머리로 피아노와 지휘 등을 섭렵한 그는 최초의 성공한 미국인 지휘자로 종횡 무진 활동을 펼쳤다. 지휘자, 작곡가, 피아니스트, 작가로서 다방면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영화 음악을 포함해, 교향곡과 오페라 등 다수의 작품을 썼다. 그의 지휘 스타일 중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마치 춤을 추는 듯한 동작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흔들기도 한다. 눈썹을 치켜 올리기도 하고 미소를 머금는 등 다양한 표정으로 음악을 이끈다. 때문에 관객의 호불호가 나뉘기도 했지만 빈 필하모닉, 이스라엘 필하모닉 등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의 수장으로 활약 했다. 1943년 대타로 올랐던 뉴욕 필하모닉 지휘 무대를 인정받아 상임 지휘자로도 활동했다.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의 공연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로린 마젤의 공연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신동에서 거장으로 로린 마젤

로린 마젤(1930~2014)은 모차르트에 견줄 수 있는 음악 신동이자 천재다. 3대에 걸친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이 비범한 재능을 보였다. 8세에 지휘자로, 15세에는 바이올리ニ스트로 공식 데뷔했다. 84년의 생애 중 72년의 지휘 경력을 가진 그는 뉴욕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프랑스 국립오케스트라 등 유럽과 미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그의 지휘는 단원들과의 확실한 호흡이 강점이다. 종종 두 눈을 크게 뜨거나 상체를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단원들의 하모니를 이끌어낸다. 그가 미국인 최초로 세운 기록도 여럿 있다. 1960년 독일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미국인 최초이자 최연소 지휘자로 데뷔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신년 음악회'에서 빈 출신이 아닌 최초의 지휘자로서 포디엄에 올랐다. 무대 위에서 그 누구보다 자유분방했던 그의 지휘 스타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Lorin Maazel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레너드 번스타인의 공연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마리스 얀손스의 공연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라트비아의 자부심 마리스 얀손스

마리스 얀손스(1943~2019)는 음악 가문에서 태어났다. 부친인 아르비드 얀손스는 렌난그라드 오케스트라의 부지휘자로 활동했다.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은 덕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활동한 것이다. 라트비아에서 태어난 그는 렌난그라드 음악원에서 피아노와 지휘를 배웠다. 이후 오스트리아로 유학길에 올랐고, 카라얀 지휘 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했다. 그 뒤 렌난그라드 오케스트라 부지휘자로 활동을 시작해 오슬로 필하모닉과 피츠버그 교향악단,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과 로열 콘서트헤보 교향악단의 지휘자로 활약했다. 특히 오슬로 오케스트라의 성장을 도왔다. 공을 인정받아 노르웨이 국왕으로부터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도 받았다. 말려와 차이콥스키 해석의 권위자로도 유명한 그는 우뚝 선 나무와 같이 흔들림 없이 지휘하는 것이 특징이다. 어떠한 음악에도 몸에 움직임을 주지 않는다. 지휘봉을 든 오른 손목을 가볍게 움직여 음악을 이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중심을 잡은 채 눈빛과 표정으로 단원들을 지휘한다. 1996년 오슬로에서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을 지휘하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뒤부터는 가슴에 제세동기를 달고 살았지만 평생에 걸쳐 세계 최고의 살아있는 지휘자라고 칭송받았다. ■

Mariss Jansons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12월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잣은 실업과 고용 불안정으로 지속적 창작 활동이 어려웠던 직업 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우리나라 문화예술 산업의 긍정적 요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빛 좋은 개살구’ 되지 않으려면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예술인 용역계약 사업주,

프리랜서 예술인 가입 필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서를 받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65세 이상과 소득이 일정액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술인과 용역계약을 맺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프리랜서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와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실직 전 2년 동안 9개월 이상 일했고, 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실업급여 수준은 아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 보수의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이고, 일반 근로자와 같이 120일~270일 동안 지급된다.

가입 대상

-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 및 신진·경력단절 예술인 등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뒤 본인이 직접 예술활동을 제공하는 예술인

제한 대상

- 근로자 예술인
-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예술인
- 일정 소득(예. 계약건별 50만 원) 미만인 예술인
- * 단, 단기 예술인(개월 미만 계약자) 경우는 제외

실업급여 수급 조건

- 보험료 납부기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 (단기 예술인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시 1개월로 간주)
-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 중대 귀책사유 해고는 수급 제한

예술 분야 사각지대

특수성 고려한 제도 필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은 예술인과 같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 적용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도가 정착되면 서면계약 문화가 자리 잡고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는 비율이 늘어나 계약 체결도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나친 장밋빛 기대는 금물이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수급 요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용역 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연 스태프나 단역배우 등은 예술 활동을 증명할 서류가 마땅치 않아 등록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많다. 문화예술 활동은 팀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 영화와 뮤지컬, 연극, 대중음악, 만화 등 분야별로 다양한 용역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술인 지원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예술인 복지법도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예술인 복지법과 시행령은 ‘문화예술’의 범위를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국악·사진·건축·어문·출판 및 만화 등 12개 분야로 한정하고, 그 중에서도 ‘문화예술용역’의 인정범위를 창작·실연·



기술지원 등에 관한 용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과거의 정형화된 구분 방식에 따라 분류가 어렵다는 이유로 예술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증명서 발급 대상에서 배제한다면 문제가 있다. 가능한 모든 문화예술용역으로 확대되도록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계약이 여전히 구두계약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고려할 요소다.

특히 저예산 예술작품 등에서 더욱 그런 경우가 많다. 통상 예술인은 일을 받아야 하는 열악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면 계약서의 작성은 강하게 요구하기 쉽지 않다.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고 대략적인 기한만 써놓거나 총 계약 금액이 모호해서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월평균 보수를 추산하기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다. 고용보험에 적용되려면 반드시 서면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활동 유형별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 활용하도록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소득이 일정액 미만인 예술인에 대한 가입 제한은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건별 보수 50만 원이나 7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 액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매달 30~40만 원씩 장기 공연을 계약한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문제는 문화예술 종사자 상당수가 건당 보수 50만 원 이하의 계약을 한다는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한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예술인의 55% 이상이 연간 수입이 500만 원 미만이다.

실직 직전 2년 동안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수급요건도 충족하기 쉽지 않다. 보통 공연 제작 시 소요되는 2~3개월의 연습 기간을 근로 기간에 포함하는 제작사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여러 제작사의 공연을 둘며 근로 기간 9개월을 충족한다고 해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가 계속 바뀌게 되어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될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 중이다. 예술인과 같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게 예산을 확충하고 가급적 많은 예술인이 수급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예술인단체 등 당사자들이 그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

대한민국 예술문화단체의 중심축으로서 짚고 새로운 예술문화 강대국 한국을 완성시켜나가는 데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이가 있다. 이범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이다. 내년이면 설립 60년을 맞는 조직의 신임 회장으로서 현재 예술문화가 처한 위기와 극복방안에 대한 조언을 담아본다.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상생 위한 과제

이범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지난 2월, 예술문화계를 대표하는 한국예총 수장이 되셨고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의 소회가 궁금합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약칭 한국예총)는 대한민국 예술문화를 선도하는 10개의 산하단체와 전국 156개의 연합회·지회에 총회원만 180여만 명에 이르는 큰 조직입니다. 그만큼 신임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올해 회장에 출마하면서 한국예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었습니다. 짚고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통해 회원들의 신뢰를 되찾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술인들의 권익 증진과 복지확대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예술인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예술가복지의 확대에 예술인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창작활동에 전념하게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힘있는 예총, 새로운 희망, 신뢰의 경영’이라는 슬로건은 그런 의지를 고스란히 담은 슬로건입니다.

한국예총은 예술문화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업무협약 등 역할 수행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추진 사업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예총은 ‘한국예술문화의 창달과 국제 교류 및 예술문화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단체의 권익을 옹호하며 상호 창작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1년 1월에 설립되어 내년이면 창립 60주년을 맞습니다. 회원단체로는 한국건축가협회, 한국국악협회, 한국무용협회, 한국문인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연극협회, 한국연예

예술인총연합회,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한국음악협회 등이 있습니다.

한국예총은 이러한 예술 각 분야의 상호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문화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권익옹호사업, 국내외 예술문화활동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 한국예술문화의 해외진출 및 교류사업, 예술문화정보 홍보 및 자료관리를 위한 종합예술지 등 각종 자료 발간 보급, 예술진흥을 위한 사회문화교육원과 평생교육원의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문화계는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코로나19가 예술문화계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심각합니다. 코로나 19사태로 취소되거나 연기된 행사가 전국에 2,500건이 넘어, 그 피해액이 물경 523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예총의 회원 협회와 연합회 지회 등의 행사 취소와 연기도 637건에 75억 원 규모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해 대비 올해의 지금까지 수입이 감소된 회원의 비율이 무려 88.7%에 달합니다. 코로나 19가 종료된 뒤에도 이런 예술문화 행사가 정상화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술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결국 지속 가능한 예술활동 지원 정책이 필수조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예술인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



“
예술인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예술가복지의 확대에
예술인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창작활동에 전념하게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



니다. 정부의 각종 지원과 혜택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거의 모든 공연과 전시가 중단되거나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이뤄져야만 합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당국자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 지자체장들을 수시로 만나서 현재 예술문화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과 집행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술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확대에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해 출간한 <예술인 복지에서 삶의 향유로>란 저서에서 '문화향유권'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문으로 “예술문화 향유권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는 온 국민이 기본 권리로서 예술문화를 누리도록 해야 하고, 그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술인의 삶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누리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술인 복지가 곧 국민들의 예술 복지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예총의 존재 이유는 단순히 예술인들의 권리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지키고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국민들이 수준 높은 예술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 생산자인 예술인들의 삶이 보장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정책들은 동시에 예술인들의 삶과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문화향유권과 관련해 추진 중인 사업이 있으신가요.

예술인협동조합을 설치하고, 예술인 유니온을 만들고자 합니다.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으로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가 무려 51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단기간 고용의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가입자가

급속하게 늘어나, 지난해 구직 수당만 9조원 가까이 지금 받고 있지만, 예술인들은 이들 정부의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지역 단위로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장르별, 지역별 예술인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한국예총이 직접 지원하고, 여기에 원하는 회원들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 조합을 중심으로 예술인의 4대 보험, 실업 수당 지급 등 현실적인 복지 평등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술인 협동조합을 통해 단위 지방정부의 예술진흥 정책을 직접 만들고 집행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율적 지역 문화예술 진흥 구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준비가 되고, 가능한 지역부터 모델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직에는 기존 예총과 별도의 조직으로 젊은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예술문화 산업에 있어 한국예총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리는 청사진이 있으신지요.

많은 예술문화인들이 코로나19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그 어려움을 절실히 호소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시적으로 예술인들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복지 실현에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모든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창작활동만으로 기본적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술인협동조합을 만들고 잘 운영해 예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들이 더욱 예술문화를 가까이 하고 직접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

국민들이 수준 높은 예술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 생산자인 예술인들의 삶이 보장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정책들은 동시에 예술인들의 삶과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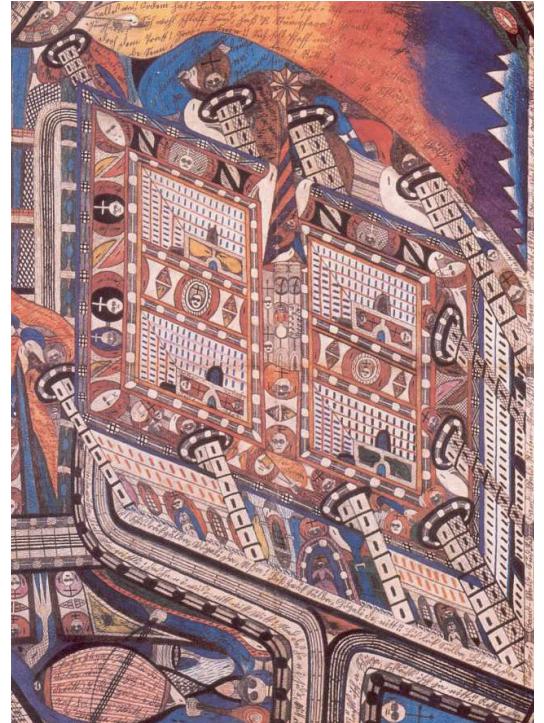
01



02



03



04

이상할 것 없는 이상의 표현

리빙 뮤지엄의 세계

리빙 뮤지엄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예술을 표현하는 모든 일이 허용된다. 다만 일반인이 아닌 정신과 환자들에게 열린 스튜디오다. 난 해한 듯 왜곡된 캔버스 위 그림들은 그 자체로 작품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된다.

가공되지 않은 순수의 예술

정신질환과 미술의 관계에 대한 의학계의 관심은 192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스위스 정신과 의사인 발터 모겐탈러(Walter Morgenthaler)는 자신의 환자가 그린 미술 작품을 분석해 책으로 엮어 출간했다. 또한 프랑스의 화가이자 조각가인 장 뒤뷔페(Jean Dubuffet)는 독일의 정신과 의사이자 미술사 학자인 한스 프린츠호른(Hans Prinzhorn)이 1922년에 저술한 정신질환자들이 그린 그림에 대한 연구 서적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 1940년대 초반부터 정신질환자들의 미술 작품을 조사하며 광범위한 컬렉션을 시작했다.

'아르 브루트(Art Brut)'는 장 뒤뷔페가 이들의 작품을 지칭한 단어로서 '가공되지 않은 순수 그대로의 예술'이라는 뜻의 프랑스어다. 그는 정신질환자, 어린이,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미술 작품들로 이뤄진 전시회를 연이어 개최했고 이러한 미술을 장려하기 위해 '아르 브루트 컬렉션'을 설립, 1964년부터 정기 간행물 〈L'Art Brut〉를 출판하기도 했다.

예술 평론가인 로저 카디널(Roger Cardinal)은 '아르 브루트'를 '아웃사이더 아트(Outsider Art)'라고 불렀다. 아돌프 웨플리(Adolf Wolphi), 알로이즈 코르바스(Aloise Corbaz), 앤나 제만코바(Anna Zemankova), 카를로 치넬리(Carlo Zinelli), 브룩스 요만스(Brooks Ycomans), 윌렘 판 헨크(Willem van Genk), 하인리히 안톤 멀러(Heinrich Anton Muller) 등이 '아웃사이더 아트'의 대표적인 작가들이다.

아르 브루트는 1983년 미국 뉴욕 주립정신병원 크리드무어 정신의학센터에 설립된 리빙 뮤지엄(Living Museum)을 통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됐다.

“

정신질환자의 몰입과
승화의 결과로
표현되는
시각 이미지들은
무의식을 상징화하고,
자율적인 창조기능을
갖는다

”

치료적 개입 최소화한 미술 공동체, 리빙 뮤지엄

사실 '미술 치료'는 1961년 미국 미술치료 회보 창간호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미술 활동을 통해 감정이나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고 기분의 이완과 감정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특히 정신질환자인 경우 그들의 내면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당사자에게 실재(實在)하는 세계다. 정신질환자의 몰입과 승화의 결과로 표현되는 시각 이미지들은 무의식을 상징화하고, 자율적인 창조 기능을 갖는다.

시각예술가이자 미술치료학자인 이디스 크레이머(Edith Kramer)는 미술 자체가 치료적이라고 강조한다. 정신질환자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변화와 감정적 보상, 성취감을 얻게 한다. 즉, 미술치료사의 역할은 환자의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승화와 통합 과정을 돋우는 것이다.

리빙 뮤지엄(Living Museum)을 처음 선보인 미국 뉴욕 주립 정신병원 크리드 무어 정신의학센터는 이곳을 미술 공동체이자 예술 스튜디오로 정의했다. 병원의 치료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환자들이 스스로 회화, 입체조형, 행위예술, 설치미술 등 다양한 미술적 표현을 자유롭게 경험하고 표출하는 예술 공동체인 셈이다.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자유롭게 미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한 결과 이곳 환자들이 그린 그림은 '아웃사이더 아트'의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뉴욕의 리빙 뮤지엄은 탁월한 임상적 효과와 예술적 가능성을 입증받아 네덜란드와 스위스에도 잇따라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2016년 아시아 최초로, 세계에서는 네 번째로 경기도 용인정신병원에 리빙 뮤지엄 코리아(Living Museum Korea)가 만들어졌다. '창조가 곧 치유다'를 모토로 정신질환자라는 정체성을 극복하고 예술가의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돋는다. 환자들이 느끼는 직관이나 감정을 최대한 자유롭게 시각적인 매체로 표현하게 해 잠재적인 예술가로 인정받고 새로운 정체성과 문화를 만들어나간다. ■

문화예술을
활용한
기업 접대

- 문화예술 분야 노력을 구애해 선물하세요!
- 기업 행사에 예술단체(가)를 초청하거나

문화 접대



접수기간 | 2020.8월~12월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www.mecenat.or.kr

문의 | 02-786-9657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Korea Mecenat Association

“ 2020 다시,
문화로 인사합시다.

기업과 문화예술의 만남으로
문화접대를 확산하고 대중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된 캠페인

한국메세나협회는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 확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문화로 인사합시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라는 불청객으로 기업과 문화예술계 모두 어려운 요즘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이 'DAI' 건네는 문화인사는 기업과 문화예술계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문화로 인사합시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슬기로운 문화접대' 사업을 진행합니다.
문화예술을 활용한 따뜻한 접대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자격

중소·중견 기업(법인에 한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에 속하는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견기업의 범위기준에 속하는 기업

지원내용

* 기업 문화접대비의 50% 지원



구분	A트랙 (함께하는 문화인사)	B트랙 (선물하는 문화인사)
지원 범위	문화예술 관련 공연 및 전시티켓 or 예술인(단체) 초청 공연·출연료 일부	문화예술 분야 도서 구입비 (문화인사 KIT제공)
지원 조건	미술 전시, 클래식/오페라 무용, 국악, 연극/뮤지컬 최소 기업부담금 100만원 이상 필요. 최대 200만원 까지 지원 ※ 2020년 12월 10일 이전 행사에 한하여 지원	* 국내작가의 문화(소설/시/에세이 등), 인문, 예술도서 최소 기업 부담금 30만원 이상 필요.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

* 지원예시 (참고 : 협회지원금 + 기업부담금 = 문화접대비 총액)

A트랙		B트랙			
협회지원금	기업부담금	문화접대비 총액	협회지원금	기업부담금	문화접대비 총액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만원	30만원	60만원
:	:	:	:	:	:
200만원	250만원	4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50만원

지원방식

한국메세나협회에서 지원금액 직접 결제

유의사항

- * 1개의 기업이 A트랙, B트랙 중복 신청 가능하지만, 트랙별 복수 신청은 불가능
- * 도서 구입비 지원의 경우, 협회가 제작한 문화인사KIT를 활용해 도서를 전달
- * 본 사업의 지원금을 활용한 문화접대 이후에는 기업 자체 회계 프로그램에 기업이 부담한 문화접대 지출 금액 입력 필수
- * 문화접대 이후에는 약식 결과보고서와 회계 프로그램 입력 폼페이지를 증빙서류로 제출

- * 접수기간 : 2020년 8월~12월 / 삼시접수 (접수 후 한국메세나협회로 연락 필수)
- * 접수방법 : 한국메세나협회 홈페이지 내 [온라인 참가신청] 페이지에 접속해 지원신청서 제출
- * 제출서류 : ①지원신청서 1부 ②신청 기업 사업자등록증 1부
- * 결과발표 : 내부심의 후 접수일 기준 1주일 이내 개별 연락

사업문의

한국메세나협회 A&B팀

www.mecenat.or.kr (☎ 02-786-9657)

문화접대비 제도

문화접대비란 기업이 고객들에게 연극, 뮤지컬·오페라, 전시회, 도서 구입, 미술품 구입 등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를 말합니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이 문화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일반접대비 핫도에도 불구하고 '접대비 핫도액의 20%까지' 추가로 순금으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문화접대는 거래처에 좋은 인상을 주고, 직원들의 위로밸에 기여해 직장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운 문화예술계를 응원하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

지속가능한 추동력! 문화예술 지원

2019 기업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



전년 대비 지원 총액·건수·기업 수 증가

원 총액의 절반을 넘어섰으나 2019년 조사에서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2018년부터 진행된 공익법인 실태조사와 관련법 개정 등 제도적 변화에 따른 혼란으로 모기업 및 관련 계열사의 출연금과 기부금을 통해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문화재단의 활동이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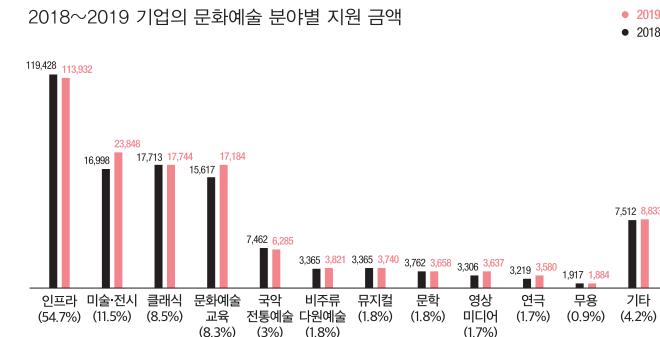
반면, 개별 기업이 직접 예술계에 지원한 금액은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문화재단을 통한 활동 외에 직접 사업을 통한 지원에 더욱 집중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으로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공익법인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기업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공공재산으로써 관련 법규에 따라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민간부문 주요 예술 지원 주체인 기업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고, 건전한 공익재단의 활발한 공익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업재단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완화하여 공익법인들의 기여 확대를 촉진하는 합리적인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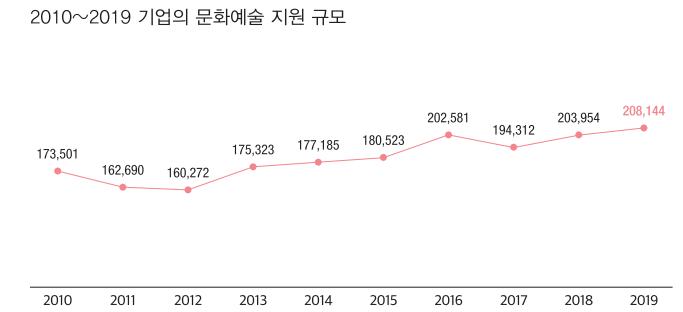
기업 문화재단의 활동 위축으로 인프라 분야 지원 감소

대표적인 문화예술 지원 창구 역할을 해온 기업 문화재단의 지원 금액은 전년 대비 4.9% 감소했으며 전체 문화예술 지원 총액의 47.9%를 차지했다. 문화재단 지원 금액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해 2018년 전체 지

2018~2019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별 지원 금액



2010~2019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



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들의 문화예술 지원 활동이 위축될 것은 자명하다. 2020년 상반기 국내 매출액 상위 11개 기업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기부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기업별 최대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우려 상황에서도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 위기 극복에 필요한 지원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지진 피해를 입은 도호쿠 지역에서 다양한 예술 치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문화예술계도 기업의 호혜적 예술 지원을 기대하기보다는 문화예술이 지닌 창의성과 정서적 치유 기능을 발휘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기업이 재난 여파로 지친 사회와 국민을 위해 추진하는 공익사업에 협력하는 등 기업 경영 활동의 파트너로서 상생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지금 지원 방식 외에도 기업이 지닌 혁신 기술 등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시대의 흐름에 따른 비대면 예술 활동에 협력할 수도 있다. 또한 정부와 관계부처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위기 해결을 위한 민간 차원의 예술 협력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미술 분야 지원 규모 급격히 증가, 공공미술 사업 지원 확대 영향

분야별 지원 금액 순위를 살펴보면 인프라(1,139억 3,200만 원), 미술·전시(238억 4,800만 원), 클래식(177억 4,400만 원), 문화예술교육(171억 8,400만 원) 등의 순이다. 문화예술 활동의 플랫폼 역할을 해온 '인프라 분야'는 전년대비 4.6% 감소했음에도 문화예술 지원 총액 중 54.7%의 비중을 보이며 기업의 지원이 가장 집중되는 분야로 나타났다. 주요 감소 원인은 대형 공연장, 복합문화공간 등을 운영하는 기업 및 문화재단의 사업 운영비 축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미술·전시 분야 지원 금액(238억 4,800만 원)은 전년 대비 40.3% 증가했다. 이와 같은 증가세는 공공미술 사업에 대한 기부금 확대 영향이 가장 커으며 전년도 조사 결과 축소되었던 유통업계의 문화예술 융합 프로젝트 및 갤러리 기획 프로그램, 숙박·레저 업계의 전시 사업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페스트라, 오페라, 합창, 음악 축제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 클래식(177억 4,400만 원) 분야는 전년 대비 0.2% 소폭 증가했다. 문화예술교육(171억 8,400만 원) 분야는 전년도 대비 10% 증가했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지원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는 기업 및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에서의 상시 교육 프로그램과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예술교육, 예술영재 장학사업 등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의 확대와 관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기업·예술·정부 파트너십 필요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문화예술계는 사상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공연, 전시, 축제 등 대면 방식의 전통적 예술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술가와 예술단체들은 온라인 콘텐츠 개발, VR 전시 등 비대면 방식의 활동을 통해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예술계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확대되고는 있으나 새로운 방식의 예술 활동에 대한 준비 과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응을 위한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2019년도까지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가 최근 3년간 소폭이나마 지속



함께하는 메세나

- 메세나 가끼이 보기 -



1 온라인 캔버스 위 드림 드로잉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온라인 아티스트 멘토링'

새로운 꿈, 새로운 예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계에 렌선 공연과 비대면 전시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현장 교육이 중요시되던 아동, 청소년 예술교육도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미술적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아티스트의 꿈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한성자동차 드림그림'이 9년 만에 처음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시작했다. 'New Dream, New art'를 주제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미술교육이다.

지난 5월 23일 온라인 발대식을 통해 80명(장학생 멘티 40명, 대학생 멘토 40명)이 온라인에서 처음 대면하면서 드림그림 비대면 미술 수업이 시작됐다. 최신 스마트패드 등 디지털 기기를 장학생들에 제공하고 기기를 최대한 활용해 미술수업을 진행하기로 계획했다. 5월 30일 시작한 '드림그림 아티스트 멘토링'은 12월까지 매 월 1회 토요일에 진행되며 게임개발, 일러스트레이터, 캘리그래피 등 전문 아티스트들과의 온라인 미술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 드림그림은 캔버스와 붓, 물감 등의 미술재료에 국한하지 않고, 스마트패드가 되어 프로크리에이터라는 앱(app)에서 다양한 컬러와 질감의 붓 등을 사용해 아이펜슬로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진행 중이다.



글. 전윤초(문화사업팀 과장)



작가 아뜰리에에서 펼쳐진 재능 나눔

올해는 특별히 작가 작업 공간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은 배송된 드로잉 키트(Kit)로 집에서 그림을 그리며 참여한다. 관객이 작품을 보는 각도와 시선에 따라 다른 환영을 경험할 수 있는 '렌티큘러'방식의 회화 작품을 처음 선보인 배준성 작가가 이번 수업에 참여했다. 배준성 작가는 루이비통 아르노회장, 케링그룹 피노회장, 배우 브래드 피트를 비롯한 전 세계 슈퍼 컬렉터들에게 각광받는 아티스트다. 드림그림 학생들과는 '드림토피아'라는 주제로 인간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오일 파스텔로 그려 작가의 손길로 재탄생될 예정이며 추후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에 기증할 예정이다.

한성자동차 올프 야우스프릉 대표는 "이번 비대면 수업은 단순히 온라인 수업이라는 취지를 넘어 IT 매체를 활용한 '스마트한 예술 교육'으로서 미디어 아트 수단으로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01-02
<드림그림> 비대면 미술교육 현장

2 하나, 둘, 셋, 큐! 칙칙폭폭 쌩쌩~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QR 속에서 펼쳐진 오페라 동화 세계

지난 7월 29일 성남의 한 아트센터에서는 경쾌한 '큐'소리에 맞춰 오페라 가수들과 여려 스태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의 2020 키즈오페라 신작 <칙칙폭폭 쌩쌩>의 공연 영상 촬영 현장이다.

투병 중인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위로와 휴식을 선물하자는 종근당 입장한 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는 2011년부터 전국 병원의 환우들을 찾아가 오페라 음악공연을 통해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중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오페라 공연 '키즈오페라'는 어린이 환우들에게 다채롭고 새로운 공연을 선물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리 오페라단과 함께 우수한 어린이 맞춤형 공연 콘텐츠 창작에도 힘을 쏟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의료진을 비롯한 환자들에 위로와 휴식이 더욱 필요해졌으나, 이전과 같이 병원에서 서로 마주하여 즐거움과 음악을 함께 나눌 수 없어졌다. 이에 2020년 키즈오페라는 신규 작품의 공연을 영상화하고, QR코드로 변환하여 음악그림책과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병원에 배포될 예정이다.

오페라 희망이야기

who
병원의 어린이 환자와 가족들,
특수학교 학생 및 교사,
미리오페라단

what
어린이 맞춤형 키즈오페라 <칙칙폭폭 쌩쌩> 음악그림책, 공연
실황영상

환우와 의료진 향한 희망 아리아

키즈오페라 <칙칙폭폭 쌩쌩>은 고마 역장 쌩쌩이 작은 역 'ㅎㅁ'을 지키며 만나게 되는 친구들과의 에피소드와 유명 오페라에 삽입된 아리아들을 재해석해 창작한 작품이다. 조명 효과와 마술적 요소를 더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동심을 자극하고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주인공 '쌩쌩'은 따뜻한 휴먼을 꿈꾸는 로봇 '미미'와 흥미로운 일을 찾는 '삐에로', 멋진 음악 밴드를 만들고 싶은 '하마'와 함께 'ㅎㅁ'역의 이름을 찾고 우정과 희망을 쌓아간다. 종근당 허딩스 관계자는 "1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매년 20여 개의 병원과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만날 수 있었던 일상이 새삼스럽고 아주 소중했던 기억으로 떠오른다.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땀 흘리고 계신 의료진들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이하고자 한다"며 비대면 문화사회공헌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가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이하여 종근당의 새로운 문화사회공헌 활동으로의 힘 있는 발돋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글. 박선현(문화사업팀 매니저)

3 무대 위 청춘 독백

두산아트센터 '두산아트스쿨 : 창작워크숍'

철저한 방역 속 꽂피운 예술창작 의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공연계에 비상등이 켜지고 문화예술교육이 마비됐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발전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메세나협회와 두산아트센터가 함께 머리를 맞댔다. 그 결과 '두산아트스쿨 : 창작 워크숍 3기'는 예술창작 의지를 꽂피우는 청년들과 함께 철저한 방역 속에서 최소 인원으로, 기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지난 7월 한 달 동안 대면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018년부터 진행 중인 '두산아트스쿨 : 창작 워크숍'은 실제 협업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에게 직접 배우고 참여자들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창작 워크숍은 희곡, 연기·연출, 무대미술 총 3개 분야, 총 9회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창작 워크숍은 기존에 참여했던 윤성호 극작가와 김수정 연출가 외에도 미술감독과 연출가로 다양하게 활동하는 미술작가 진기종이 맡았다.

예술창작 의지 꽂피우는 청년

희곡 워크숍을 진행한 윤성호 작가는 이론수업과 더불어 참여자들이 10분 단편 희곡을 쓰는 실기수업을 함께 구성했다. 참여자들은 희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희곡을 쓰기 위한 과정과 방법 등 구체적인 창작법을 배우며 한층 더 성장했다. 10분 단편 희곡을 완성한 참가자 이예린 씨는 "같이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많은 힘을 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작품을 마칠 수 있어 귀중한 기회였다"며 소감을 밝혔다.

연기·연출 워크숍을 맡은 김수정 연출가는 신체 원리를 이해하는 이론 수업과 무대 위에서 서고, 보고, 걷고, 말하기를 해봄으로써 인물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표현하는 방법을 강의했다. 무대미술 워크숍은 다양한 표현 방식의 가능성을 고민하고 자신의 무대를 디오라마(diorama)로 표현해보는 시간이었다. '무대란 삶의 순간들을 관객이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에 박제하는 것'이라는 진기종 작가의 수

함께하는 메세나
– 메세나 가끼이 보기 –



업 개념을 토대로 참여자들은 각각 주어진 미니어처를 이용해 스토리를 구성하고 하나의 공간을 만들었다. 발표회 마지막 날까지 강사를 비롯한 모든 참여자들은 마스크 속에 얼굴을 가린 채, 단톡방에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8 월 말 기준으로 코로나 상황이 격앙되면서 11월에 진행될 창작워크숍 4기는 언택트 방식인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



랜선라이브 뮤직토크 콘서트 성료

지난 7월 12일 무관중 온라인 콘서트 '메트라이프 Gift콘'이 한국메세나협회와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세종문화회관의 공동 주관하에 네이버TV 라이브와 브이라이브(VLIVE)를 통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공연은 세 기관이 힘을 합쳐 코로나로 침체된 공연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메트라이프 Gift콘' 온라인 콘서트는 약 1만여 명의 관람객이 함께했다. 개그맨 김인석이 사회를 맡아 실시간 채팅창 댓글을 이용해 연주자와 관객과의 소통을 친숙하게 전달했으며 관람객들은 '안방 1열'에서 공연을 만끽할 수 있었다.

한국 전통음악과 대중적 스토리를 결합한 국악단체 억스(AUX)의 전통음악과 대한민국 최초 장애·비장애 통합 오케스트라인 코리아 아트 빌리티 체임버가 대중들에게 친숙하고 인기 있는 곡을 선보였다. 오케스트라 선율과 국악이 어우러진 아리랑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클래식과 국악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관객들은 수준 높은 공연을 감상할 수 있었다.

안방에서 만나는 고품격 힐링 공연

이번 콘서트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메인화면에 노출돼 더 많은 관심과 호응이 있었다. 특히 SNS 계정을 통해 공연 실황이 실시간 공개돼 공연 종료 후에도 공연 재관람 시청 문의가 이어지는 등 관객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온라인으로 공연을 지켜보는 관객들은 "부산 시민이라면 서울 공연이 아쉬웠는데 집에서 볼 수 있어서 좋네요", "생후 150일 된 딸 아이랑 같이 보고 있어요. 무릎에 앉혀서 보는데 너무 좋아하네요!", "좋은 공연을 안방에서 볼 수 있어 행복했다" 등의 댓글로 공연에 회답했다.

코리아 아트빌리티 체임버 강미사 대표는 "처음 진행하는 온라인 공연에 연주자들이 심리적 부담을 느꼈지만, 공연팀보다 숫자가 더 많은 스태프들의 숨은 노력과 관객들의 실시간 응원 댓글에 힘을 얻었다"라며 온라인 공연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



4 마음 두드리는 클래식 선율과 국악 장단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Gift콘'



함께하는 메세나
– 메세나 가까이 보기 –

집에서도 열정 ON! 위기 극복 열혈 도전

GS칼텍스 '취준동고동락 4기 캠프'

국내 첫 시도 온라인 취업준비 캠프

코로나19로 인해 지극히 당연했던 일들이 불가능해진 반면 불가능하다고 여긴 일들이 기어코 가능해졌다. GS칼텍스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취준동고동락' 역시 4기 행사를 앞두고 손발이 묶였다. 다수가 모여 함께 먹고, 자고, 활동하고 배우는 캠프의 특성상 기존의 형식을 완전히 바꿔야만 했다.

최초로 시도된 100% 온라인 캠프 '4기 취준동고동락'은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약 2주간, 취업 준비생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는 분위기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당초 300명을 모집한 가운데 최초 접수인원 344명, 최종 참가인원 307명, 최종 수료인원 230명(참가 대비 수료율 약 75%)을 기록했다. 번뜩이는 퀴즈로 호평을 받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변화된 채용시장과 비즈니스 형태 등 취업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 '취준진담 ; 찐 토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심리 조언하는 '취준 심리상담소', 취업 특화 자소서 작성 노하우를 전수한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 언택트부터 대면면접까지 면접의 모든 것을 알려준 '언택트 면접 전략', 직무별 현직자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어졌다.

온기 나눈 ON택트

'취준진담 ; 찐 토크'에서는 <채용트렌드 2020> 저자 윤영돈 박사와 정한나 한국바른채용인증원 책임연구원이 이야기를 풀어냈다. '취준 심리상담소'는 유튜버로도 활약 중인 의사 형제 양재진, 양재웅 원장이 능숙하고 위트 있게 진행했다. 자소서계의 떠오르는 강자 움스잡스가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 강연에서 활약했고, '언택트 면접 전략'에서는 면접왕으로 알려진 이준희 대표가 강연자로 나섰다. 그 가운데 취업 준비생들이 정서적 안정과 자신감을 회복 할 수 있도록 자신의 경험을 연극으로 만들어 낭독하는 프로그램 '나의 이력곡'은 캠프의 하이라이트였다. 10명씩 한 그룹이 되어 온라인상에서 1시간 30분씩 만났고 깊은 공감을 나누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울고 웃었다.

약 2주간의 캠프는 취업준비생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준 창작뮤지컬 <I AM> 온라인 공연과 수료식으로 마무리됐다. 현장의 박수 소리는 없었지만 온라인 댓글창이 쉴 새 없이 시끌벅적했다. 성공적인 마무리였다. 얼어붙은 취업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모든 취업준비생들이 '불가능'을 무너뜨리고 '가능'이라는 고지에 올라서기를 바란다. ■■■

01·02

진중한 둔답이 오고 간
전문 멘토들과의 온라인 상담



김서현(문화사업팀 대리)



제38회 마로니에 전국여성 백일장



가을, 오직 당신이기에 느낄 수 있는 감각과 당신의 손끝에서 바로소 흐름하기 시작하는 단어, 문장, 글, 이야기들.
비어 있던 원고지에 새로운 숨을 불어 넣어줄 당신을 기다립니다.

백일장_ 2020.10.16.(금) | 수상자 발표_ 2020.11.10.(화)

참가 자격

여성이면 누구나

참가 부문

시, 산문, 아동문학(동시동화)3개 부문

- ① 작품 제출 편수 : 1인 1부문 1편으로 제한
- ② 작품 분량 : 200자 원고지 20매 이내
- ③ 원고지 배포 :
 - 1) 사이버문학광장 누리집에서 원고지 양식 다운로드 (MS-Word, 한글)
 - 2) 사이버문학광장 누리집에서 원고지 사전 신청 시 우편으로 배송
- 10월 6일(화)까지 신청 가능
 - ④ 글쓰기 : PC 및 육필 작성 가능

글제

온라인 생중계 추첨 및 발표

- ① 발표일시 : 10월 16일(금) 10:00
-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페이스북 & MUN JANG 유튜브 채널
- ③ 선정된 4개 글제 중 택1하여 작성

수상 발표

- ① 수상 후보작 온라인 공개 : 10월 23일(금)~11월 6일(금) / 사이버문학광장 누리집
(후보작의 표절 및 타 공모전 선정 여부 공개검증)
- ② 수상자 발표 : 11월 10일(화) / 사이버문학광장 누리집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수석문화재단 동아제약 동아ST

백일장 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Tel. 061-900-2328)

접수확인 문의 e-mail. maronie2020@naver.com / Tel. 02-2058-0578

베토벤이 전하는 힘찬 위로

대원문화재단&평창대관령음악제



강원도가 주최하고 강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평창대관령음악제(이하 음악제)는 강원도 대자연의 품에서 펼쳐지는 음악 축제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7회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이번 음악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첫 대규모 음악제였다. 최연소 예술 감독으로 취임 후 올해 3년 차를 맞는 손열음 예술 감독은 뛰어난 기획력과 아이디어로 또 한 번 큰 주목을 받았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그가 현악 사중주 제16번 악보에 적어놓은 노트의 일부인 'Es muss sein 그래야만 한다!'를 주제로 삼아 베토벤의 정신과 사상이 잘 드러나는 9개의 메인 콘서트 타이틀을 세 번의 실내악 공연과 여섯 번의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기획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해 강릉에서는 지정장소에서 드라이브 인 콘서트를, 삼척에서는 열린 공간 음악회(야외음악회)를, 춘천에서는 이동형 트럭 콘서트를 진행해 화제를 모았다. 음악제의 교육 프로그램인 엠피 아카데미는 최초로 온라인 마스터클래스로 진행하며 더 많은 학생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강원예술고등학교 성악과에서 선발된 학생들을 중심으로 테너 최원휘의 찾아가는 마스터클래스도 개최했다. 이번 음악제는 특히 안전 관리에 철저하게 대응하여 눈길을 끌었다. 강원도가 최초 개발한 '전자스탬프 방역시스템'인 클린강원 패스포트를 도입해 운영하고 매 공연 전후로 공연장 전체를 소독하는 등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객석은 3분의 1만 채우고 무대 위 연주자들도 거리를 두었다.

한국메세나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원문화재단은 2004년 설립 시부터 다양한 클래식 음악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2011년부터는 매해 평창대관령음악제의 데일리 공연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세심한 안전 대응 속에 성공리에 펼쳐진 음악제의 새로운 시도들에 박수를 보내며, 많은 이들에게 베토벤의 곡이 충분한 위로와 희망의 메세지가 되었기를 바란다. ■■■

- 01 음악제 하이라이트인 폐막 공연 <Now or Never 지금 아니면 다시는> 무대
- 02 관객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감동과 환희를 나눈 손열음 예술 감독
- 03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된 트럼펫 연주자 알렉상드르 바티의 마스터클래스 현장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성찰

종근당홀딩스 <제7회 종근당 예술지상 기획전> 개최

종근당홀딩스가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1층 미술관에서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제7회 종근당 예술지상 기획전>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세종문화회관과 '문화예술 사회공헌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주최를 하는 첫 전시이기도 하다.

2012년부터 진행한 '종근당 예술지상'은 한국 현대미술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입장한 회장의 뜻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종근당홀딩스는 한국메세나협회, 아트스페이스 휴와 협력해 매년 3명의 신진 미술작가를 선발해 1인당 연간 1천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3년간 지원하며 지원 마지막 해에는 기획전 개최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기획전은 '종근당 예술지상 2018' 선정 작가인 김창영, 서민정, 서원미 3명의 작가들이 3년간의 창작성과를 선보이는 자리로 총 5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3명의 작가는 종근당 예술지상 작가에 선정된 후 종근당의 창작지원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김창영 작가는 대형 모노크롬 연작을 통해 모호하며 추상적인 채색과 이미지로 일상과 현실의 문제를 벗어나 사색적이며 시적인 문제를 다룬다. 그러나 현실로부터 완전히 유리된 것이 아닌 폭력과 부조리의 문화 속에서 작가가 바라보는 이상적 평화와 평온의 상태를 제시한다.

서민정 작가는 대상을 재현하기보다 작업과정에 나타나는 작가의 태도에 대한 반응을 담은 이미지를 선보인다. 대상은 하나의 형태나 색채로 고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동하는 이미지와 색채의 혼합 상태가 된다. 작가에게 회화란, 현실이 우리에게 학습시키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몸의 움직임과 호흡의 기록이다.

서원미 작가는 검은 장막을 모티브로 어둡고 음울한 형상의 회화를 제작한다. 작가는 죽음과 상처와 고통을 주제로 우리의 일상과 현실이 분명한 사실과 진실을 가리는 검은 커튼으로 은유한다. 회화는 관객이 손을 뻗어 장막을 걷어내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인다. 장막은 평평하지 않은 현실의 깊은 심도(深度)를 은유한다.

이번 전시의 기획자인 아트스페이스 휴 김노암 대표는 "이번 종근당 예술지상 작가들의 주제와 회화는 불안과 공포, 환경오염과 생태위기 등 풍요로운 현대 문명과 문화의 어두운 면을 담고 있다"라며 "현대 회화가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

문화예술 공연에 깃든 착한 소통

동아제약&문화예술봉사단메리

한국메세나협회와 동아제약이 지난 6월 9일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위해 '문화예술봉사단메리'와 후원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동아제약 본사(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실시된 협약식에는 최호진 동아제약 사장, 박주영 문화예술봉사단메리 이사장, 이충관 한국메세나협회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난 2018년 실시했던 '풀려라 자원봉사' 캠페인 일환으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해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협약에 따라 동아제약은 문화예술봉사단메리에서 진행하는 문화봉사 공연 및 자선 연주회 운영 비용과 박카스, 가그린 등을 지원한다. 문화예술봉사단메리와 한국메세나협회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 예술공연을 기획하고 실시한다.

2015년 설립된 문화예술봉사단메리는 청소년·청년대학생 봉사자 양성, 참여형 문화예술콘텐츠 개발을 통해 '사회적 예술 활동'을 고민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봉사활동 - 음악 교육을 결합한 프로그램인 '메리오케스트라, 메리콰이어, 메리양상블'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공연을 통해 누구나 생활예술의 주체가 되고 지역사회와 봉사자가 성장하는 문화예술봉사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한국메세나협회는 기업이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활동 및 운영을 지원해 상호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s&Business)'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동아제약과 문화예술봉사단메리의 결연을 비롯해 다양한 기업과 예술단체의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이 자원봉사자들에게 힘이 되고 시민들에게 문화 공연을 선물해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아제약은 지난 2018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자원봉사자 격려 및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풀려라 자원봉사 캠페인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단체 '어떤 버스'를 지원해 오고 있다. ■■■

01·02
지난 6월
문화예술봉사단메리와
후원업무 협약을 맺은
동아제약



당신들의 조국은 안녕한가

익스페에스 주식회사&극단 더듬 '뮤지컬 <심우(尋牛)>'

지난 7월, 북쪽 성곽 끝 성북동 고택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가 며칠간 성곽을 타고 울려 퍼졌다.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다다르는 곳은 만해 한용운 선생의 입적지인 심우장(尋牛莊). 정면 네 칸, 측면 한 칸에 단출하면서도 정갈한 그곳에서, 시간은 193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용운 선생과 독립운동을 함께하던 김동삼 선생의 죽음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뮤지컬 <심우>는 선생의 딸 영숙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사체로 나왔지만 누구 하나 거두는 사람이 없던 김동삼 선생을 한용운 선생과 그 제자들이 거둬 심우장으로 데려와 조촐하게 장례를 치른다. 한용운 선생은 동료의 비참한 죽음과 변절한 옛 독립투사들 앞에서 좌절하지만, 딸 영숙을 통해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본다. 공연은 당대의 빠아픈 현실 그리고 독립운동가의 삶과 고뇌를 고스란히 담았다.

창작뮤지컬 <심우>는 극단 더듬이 기획해 2014년 초연을 시작으로 6년 동안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적지 않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익스페에스 주식회사 기업의 후원으로 공연을 이어갈 수 있었다.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높은 몰입도와 공연 끝에 전해지는 짙은 여운은 아마도 공간이 주는 힘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심우장은 한용운 선생이 1933년부터 1944년, 입적까지 실제 가족과 함께 생활하던 곳이다. 대문부터, 앞마당, 고택, 한용운 선생이 직접 심은 향나무까지 실재하던 모든 곳이 무대가 되었다.

한용운 선생의 흔적이 배어 있는 장소에서 진행되는 공연은 심우장에서의 일화와 의미를 돌아보고 선생의 삶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공연을 통해 심우장은 단순히 멈춰버린, 잊혀진 역사 속 유적지가 아니라 백 년에 가까운 시간을 뛰어넘어 새로운 이야기와 의미가 담긴 현재에 새겨진 공간으로 남는다.

독립운동의 암흑기이었지만 광복을 지척에 둔 1930년대 후반, 백년 후를 상상하며 그 자리에 없던 우리에게 상기된 목소리로 독립의 여부를 묻던 한용운 선생의 목소리가 여전히 생생하게 들리는 것만 같다. ■■■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올림푸스한국, 고잉 온(Going-on) 캠페인

음악으로 만나는 첫 세상

신한은행, 'With Concert' 유튜브 라이브 진행



신한은행이 지난 9월 9일 유튜브 라이브 콘서트를 통해 장벽 없는 음악 소통을 이어갔다. 국내 정상급 발달장애 연주자로 구성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와 신한음악상 수상자가 함께하는 'With Concert'다.

신한음악상은 금융권 최초로 순수 국내파 클래식 유망주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2009년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신한음악상이 배출한 인재들이 국내 최고 아티스트로 성장해 국내 및 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는 하트-하트재단과 'With Concert'를 통해 발달장애 연주자와 멘토 연주자가 도전과 꿈, 희망을 담은 뜻깊은 연주회를 진행해왔다.

피아니스트 송영민의 사회로 진행된 올해 공연은 플루트 하유빈, 첼로 김가은이 연주자로 나서 초가을 밤을 클래식 향연으로 물들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 라이브로 공연이 진행됐지만 현장 못지않은 뜨거운 감동이 안방까지 전해졌다는 후문이다. 발달장애 연주자의 생애 첫 리사이틀 'With Concert'는 하트-하트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으며 12월까지 매월 2,4째 주 수요일 저녁 6시에 진행된다. ■■■

올림푸스한국은 지난 8월 4일 대한암협회와 사회공헌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암 경험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서적 지지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고잉 온(Going-on)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암 경험자들의 아름다운 삶은 '계속된다(Going on)'는 의미를 담은 고잉 온 캠페인은 지난 해 세 차례의 '올림콘서트'에 참가한 암 경험자 및 가족 3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중점 프로그램이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양한 암 관련 전문의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고잉 온 토크(Going-on Talk)', 심리 치유 음악 예술 활동인 '고잉 하모니 (Going-on Harmony)', 1인 크리에이터 육성 영상 콘텐츠 교육 '고잉 온 스튜디오(Going-on Studio)'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실용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올림푸스한국과 대한암협회는 고잉 온 캠페인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암 경험자들의 삶의 질 회복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



GS칼텍스 예술 피어나는 '도'다
GS칼텍스 예술 피어나는 '도'다

예술 피어나는 '도'다

GS칼텍스 예술 피어나는 '도'다
GS칼텍스 예술 피어나는 '도'다

위기 뚫고 성장하는 K-단편영화

아시아나항공, 제18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지원작 공모

GS칼텍스 예술 피어나는 '도'다(GS Cinecube)는 GS칼텍스 예술마루(이하 예술마루)가 예술의 섬 장도 창작 스튜디오 1기 입주 작가를 선정했다. 하계훈(미술평론가), 류철하(이승노 미술관관장), 윤익(前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실장) 등 미술계 전문 심사위원들을 초빙해 서류심사, PT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입주 작가는 이민하, 이지연/성정원, 예술인 연합AAA(김도영/송성진/이창운/이창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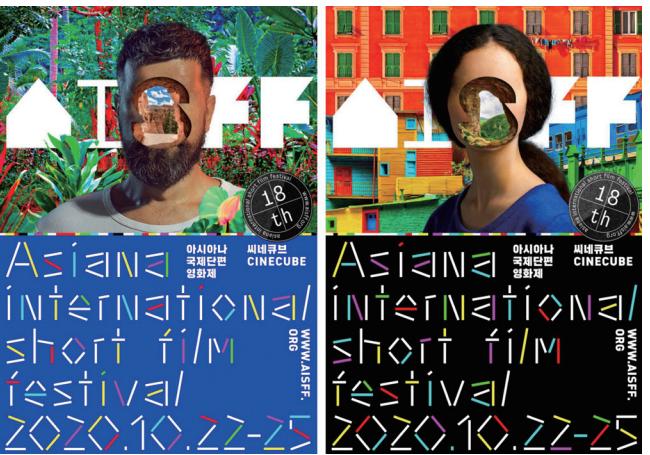
선정된 작가들은 6월 입주를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창작공간과 창작금을 지원받으며 평론가 매칭, 오픈 스튜디오, 전시회 지원 혜택을 부여받아 작품 활동을 하게 된다. 10월 중 사흘간 창작 스튜디오를 개방해 지역 및 예술관계자들이 입주 작가의 작업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오픈 스튜디오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동 기간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가꿔가는 예술의 섬 장도의 성격이 더욱 짙어지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예술마루는 지난 해 5월 예술의 섬 장도 조성 프로젝트를 마치고 장도 전시관과 창작 스튜디오를 개관했다. ■■■

제18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가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아시프 펀드 프로젝트 지원작 공모를 진행했다. 아시프 펀드 프로젝트(AISFF FUND PROJECT)는 2005년부터 시행해 온 사전제작 지원프로그램으로 국내 단편영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고 단편 영화제작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발 기금이다.

이번 아시프 펀드 프로젝트는 공개 행사로 진행했던 예년과 달리 '언택트 시대'에 걸맞춘 비공개 형태로 전환하여 진행한다. 2020년 10월 7일 (수) 1차 심사에서 선정된 프로젝트는 10월 16일(금)에 있을 심사위원회의 개별 면접을 거친 후 최종 수상작으로 결정된다. 아시프 펀드상 1편의 결과 발표 및 시상은 2020년 10월 25일(일) 제18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폐막식에서 진행되며 제작비 1천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완성된 작품은 2021년 제19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에서 최초 상영될 예정이다.

한편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는 전 세계 124개 국 5,110편 중 영화제에 진출할 최종 61편을 발표했다. 다채롭고 개성 넘치는 단편들은 10월 말 열리는 제18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에서 만나볼 수 있다. ■■■



경계 없는 융합 예술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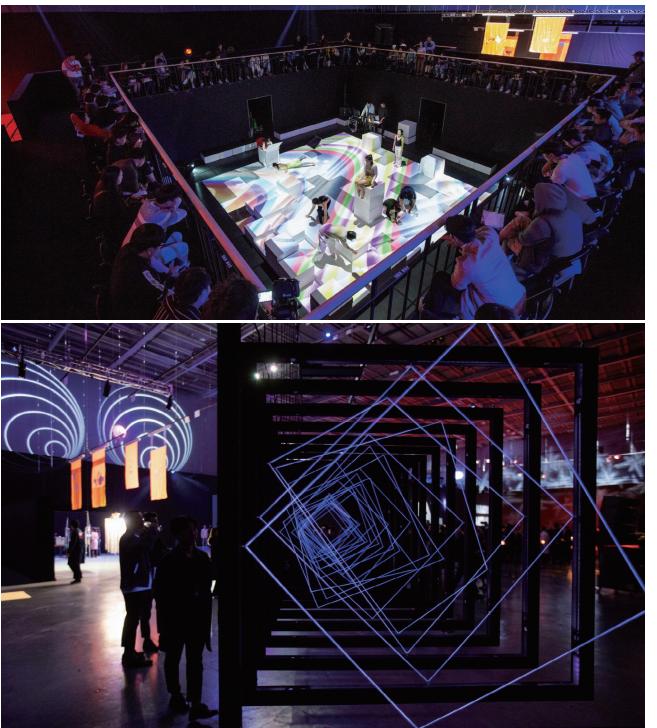
파라다이스문화재단, '2020 파라다이스 아트랩' 작품 선정

(재)파라다이스문화재단이 예술 창·제작 지원사업 파라다이스 아트랩(Paradise Art Lab) 공모를 통해 총 10개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파라다이스 아트랩'은 장르에 경계를 두지 않고 예술과 기술을 융합하는 작업을 지원하는 (재)파라다이스문화재단의 테마형 지원 사업이다. 당해 1월, 공모를 통해 200여 개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이후 전문가를 통한 1차 서류 심사와 2차 PT 심사를 거쳐 총 10개의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2020 파라다이스 아트랩에는 인스톨레이션, 미디어 파사드, 퍼포밍 아트, 오디오 비주얼 등 다채로운 장르의 작품들이 대거 등장했으며, 선정 아티스트는 강해인, 문준용, 양정욱, 우주+림희영, 이정인 크리에이션, 조영각, 최성록, Tacit Group, collective A, PROTORMO(가나다순)이다. 특히, 이번 선정 작품은 인공지능, 브레인컴퓨터 인터페이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한 예술 트렌드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선정된 작품에는 총 3억 원의 제작비 및 프로듀싱 혜택이 제공되며, 오는 10월 폐스티벌을 파라다이스시티(인천 영종도 소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



세월 깃든 전통의 멋

전주공예품전시관 '바람, 유랑' 기획전 진행

(주)신세계디에프와 결연을 맺고 있는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공예품전시관이 '바람, 유랑'을 주제로 전시를 진행한다.

각궁을 비롯해 흑시, 죽시 등 궁시 작품과 더불어 과거 성인 남성들이 주로 사용한 공예 작품 30여 점에 바람의 흐름과 자유로움을 담은 기획전으로 대한민국 명인명장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활과 화살을 제작하는 장인인 궁시장의 작업 영상 감상을 통해 작품에 담긴 정교한 기법을 살펴보고 장인의 얼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전시된 할에서 유연함과 강인함이 함께 담겨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작품에 담긴 장인의 시간과 정성에 빠져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통공예의 전승과 발전에 목적을 두고 '한수', '한갓진 일상'에 이어 세 번째로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9월 15일(수)부터 12월 27일(일)까지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공예품전시관 명인명장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관일이다. ■■■



예술 인재 키우는 희망 지원 사격

템퍼코리아, 한국예술종합학교 장학금 지원

덴마크 매트리스 브랜드인 템퍼코리아가 지난 9월 초, 한국예술종합학교 발전재단을 통해 미술원 전체 학과 재학생 중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했다.

한 학기에 다섯 명씩 앞으로 1년 동안 총 10명의 재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2020년도 2학기에는 조형예술과, 미술이론과에 재학 중인 5명의 학생에게 지원했으며, 장학금액은 실험 실습비를 제외한 한 학기 등록금 전액 수준이다.

이 밖에도 템퍼코리아는 '우리에게서 찾은 행복(Happiness found in HYGGE)' 캠페인 진행 등으로 예술과 문화의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경(上·下)

신진 청년작가 등용문 활짝

BNK부산은행, '2020 New Artist Award' 개최

BNK부산은행이 청년작가 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국 규모의 공모전인 제5회 BNK청년작가 미술대전 '2020 New Artist Award'를 개최한다. BNK부산은행은 청년작가 미술대전 공모전을 통해 한국 현대미술을 이끌어 갈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해 미술계에 진출시키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이번 공모전은 국내 최대 국제 아트페어 아트부산을 주관하는 (사)아트쇼부산이 함께 해 더욱 신뢰도 높은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다.

제5회 청년작가 미술대전은 회화, 조각, 설치, 미디어 등 현대미술 전 분야를 아울러 2000년생 이상 1986년생 이하 시각예술부문 전공이면 누구나 자유주제로 참가 가능하며 9월 1일부터 7일간 접수가 진행됐다.

총 시상금은 2,900만 원으로 수상자에게는 시상금과 함께 수상작 전시를 위한 전시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2021년 아트부산&디자인 신진작가 특별전시에 출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2020년도 제1차 네오메디치포럼 개최



기업들의 메세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중견기업 CEO 네트워크인 '네오 메디치포럼'이 7월 8일(수) 63빌딩 터치더스카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네오메디치포럼의 첫 예술지원 프로젝트 <1st 네오메디치포럼 영아티스트>를 진행했다. 첫 번째 영아티스트로 선정된 김준희 피아니스트를 초청하여 후원 기념패 전달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김준희 피아니스트는 "후원 액수를 떠나 예술지원에 앞장서 주시는 기업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라며 소감을 전했다. 김준희 피아니스트는 2019년 이태리 산타바바라 국제 음악제 음악감독 역임, 2017 블라디미리 호로비츠 국제 음악콩쿠르 우승, 2016 슈베르트 콩쿠르 2위, 2007 국제 음악콩쿠르 최연소 그랑프리 및 3개 특별상 등을 수상한 피아니스트로 서울예고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거쳐, 현재 독일 뮌스터 음대 콘체르트 엑자マン 과정을 수료 중에 있다. ■■■

한국메세나협회-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세종문화회관 공연예술 사회공헌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메세나협회와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세종문화회관이 지난 7월 10일, 공연예술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사는 코로나로 침체된 공연예술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

앞으로도 세 기관은 코로나로 침체된 공연예술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을 통해 기획하고 세종문화회관의 공간을 활용한 활발한 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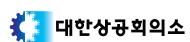


그 시작으로 코로나 시대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무관중 공연인 7월 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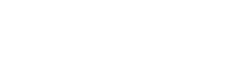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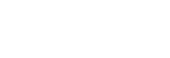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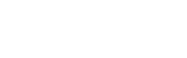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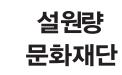
쉼표 '메트라이프 Gift콘'이 기획됐다.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의 문화예술 사회공헌 프로젝트 'The Gift'와 세종문화회관의 온쉼표 협업으로 탄생 된 무관중 공연이다. 7월 12일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에서 진행된 7월 온쉼표 '메트라이프 Gift콘'은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한국 전통 음악과 대중적 스토리를 결합한 국악 공연 억스(AUX)와 대한민국 최초 장애·비장애 통합 클래식 전문연주단체 코리아 아트빌리티 체임버가 평소 접하기 쉽지 않은 클래식과 국악의 콜라보 공연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회장사
일신방직
부회장사
교보생명보험
(주)노루홀딩스
동성코퍼레이션
벽산엔지니어링
삼성미술관(삼성문화재단)
삼양홀딩스
설원왕문화재단
세아제강
(주)유니드
종근당
코오롱그룹
크라운-해태제과
파리다이스문화재단
풍산그룹
한화갤러리아
현대해상화재보험
효성
한미약품
이사
고려당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주)두산
디자인하우스
사라
(주)신세계
이건홀딩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성자동차
LG연암문화재단
SK SUPEX추구협의회 Social Value위원회
회원사
가나아트갤러리
강원랜드
경남스틸
공간그룹
광주요
금융투자협회
금호건설
금호고속
금호고속 유스퀘어
금호미쓰이화학
금호석유화학
금호타이어
금호폴리켐
금호피앤비화학
기아자동차주식회사
나라삼양감속기
나라통상(주)
(주)나우피플
남이섬교육문화그룹(주)
네이버문화재단
네이처스웨일리코리아
(주)노루비케미칼
(주)노루오토코팅
(주)노루페인트
녹십자
뉴서울컨트리클럽
뉴스킨 코리아(주)
뉴욕제과
(주)다진
대림산업
대성산업가스
대신증권
대우건설
(주)대창스틸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제분
(주)대한항공
더페이스샵코리아
(주)돌실나이
동서식품
동아제약
동아출판
동일FnG(주)
두산건설
두산연강재단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로얄&컴퍼니(주)
롯데렌터카
롯데문화재단
롯데백화점
(주)마케팅큐레이터 그룹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모나미
문화유산국민신탁
미디어윌
법률사무소 C&B
베이글카페
보령제약(주)
본아이애프(주)
불보건설기계코리아
(주)브레드가든
빌모트 건축사무소 한국지사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서울병원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주)삼양인터내셔널
삼익문화재단
삼일회계법인
(주)삼화에프앤에프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예술기획
서울옥션
(주)성도GL
(주)세원특수금속
세일ENS
세화예술문화재단
소니코리아
(재)송원문화재단
(주)스파크인터내셔널
신라교역
신성씨에스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신한카드
아시아나HDT(주)
아시아나에어포트(주)
아시아나항공
(주)아이피케이
(주)에스원
영앤임섬 주식회사
오리콤
오비맥주 주식회사
오성정보통신
올림푸스한국(주)
(주)우진
우진건설(주)
원마운트
월드리조개발주식회사
원포시스(주)
유안타증권
유종아트센터
이건산업
인산죽업 주식회사
인터넷 큐브릿지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일진문화재단
재단법인 송강재단
제우인베스트먼트(주)
제일기획
조선호텔
종이문화재단
지알이파트너스자산운용주식회사
지앤하이어링코리아
청림출판
컨슈머타임스
케이옥션
(주)코리아 투모로우
(주)코스모스악기
코카콜라음료
(주)크레디아프로젝트
(주)클리우드나인마케팅
태영건설
퍼시스
페르페티 반 멜 아시아퍼시픽
포스코ICT
필룩스
(사)한국FPSB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공항공사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무역협회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암웨이
한국전력공사
한맥도시개발
한미회계법인
한빛문화재단
한세실업
(주)한진
(주)한화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솔루션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예술관
현대차 정몽구 재단
(주)호텔롯데 면세점
호텔신라
홈플러스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휠라코리아
휴맥스
BMW코리아(주)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CJ문화재단
DI동일
GA KOREA smart city & resort
GS칼텍스 예술마루
(주)HK
HSD엔진
IBK기업은행
(재)KBS교향악단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KT
KT&G
LG생활건강
LG전자
LG화학
LH
OCI
POSCO
SK건설
SK네트웍스
SK증권
SK텔레콤
SK해운
SM삼환기업
TCC스틸



사라



사라





추석엔

와인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로버트 몬다비,
나파밸리
까베르네 소비뇽

샤또 드 보카스텔,
샤또네프 뒤 파프 루즈

토레스,
마스 라 플라나

프레스코발디,
깜포 아이 사씨
로쏘 디 몬탈치노